朝鮮日報
夕刊
二日(火)
本紙朝夕刊十二面

陣痛五日만에 林內閣遂出現

二日午前九時半에 參內閣員名簿를捧呈

親任式도今日中擧行

【東京電話同盟】林內閣의組閣工作은 二日午前六時半 伍堂中將의 商工大臣兼鐵道大臣就任受諾回答으로 겨우 完了되엿스므로 林大將은 二日午前九時半 參內하야 天皇陛下께 拜謁하고 組閣 大命을拜受한後 左의 閣員名簿를 捧呈, 御裁可를仰하고 繼續하야 親任式을 擧行하기로 되엿다

陸軍大將正三位勳一等功四級 任內閣總理大臣 兼外務大臣文部大臣 林銑十郞

從四位勳三等 任內務大臣 河原田稼吉

從六位勳六等 任大藏大臣 兼拓務大臣 結城豊太郞

陸軍中將正四位勳一等功四級 任陸軍大臣 兼對滿事務局總裁 中村孝太郞

海軍中將從三位勳一等功四級 任海軍大臣 米內光政

檢事正四位勳三等 任司法大臣 鹽野季彦

從三位勳一等 任農林大臣 兼遞信大臣 山崎達之輔

海軍造兵中將從四位勳二等 任商工大臣 兼鐵道大臣 伍堂卓雄

從三位勳二等 任內閣書記官長 大橋八郞

從四位勳三等 任法制局長官 川越丈雄

林內閣親任式

午前十時鳳凰間에서

【東京電話同盟】二日早曉에 이르러 마침내 組閣을 完了한 林大將은 午前九時半宮中에 參內하야 同九時四十分 天皇陛下께 拜謁의 御沙汰를 맛고 愼重히 熟議한結果 삼가 大命을 拜受한 旨를 奉答한後 恭遞히 閣員名簿를 捧呈하엿다 天皇陛下께압서는 이를 御嘉納하압시엿슴으로 林大將은 一旦御前을 退下하엿다 그리고 陛下께압서는 即日親任式을 行하압실 旨를 御沙汰하압시엿스므로 林大將은 燕尾服에 勳一等의 本綬를띄고 他閣僚도 各通常禮服或은 禮裝으로 感激에 넘치며 前後로 參內하야 控室에 參集하엿다

天皇陛下께압서는 御通常禮裝으로 松平式部長官前行, 午前十時十五分鳳凰室에出御하압시사 먼저 陸軍大將林銑十郞氏에 內閣總理大臣兼外務大臣文部大臣親任의 勅語를 下賜하압시고 永野海相으로부터 官記를 拜授한後 陛下께압서는 一旦入御하압시엿다가 繼續하야 同十一時半부터 林首相侍立下에 他閣僚의 親任式을 行하압시엿다 玆에 林內閣은 完全히 成立되엿다

廣田首相以下辭表聽許

【東京電話同盟】二日林新內閣이 成立되는 同時에 廣田前首相以下關係閣僚의 辭表는 聽許되어 左와 如히 發令되엿다

內閣總理大臣 廣田弘毅
外務大臣 有田八郞
內務大臣 潮惠之輔
大藏大臣 馬場鍈一
陸軍大臣 伯爵 寺內壽一
海軍大臣 永野修身
司法大臣 林 賴三郞
文部大臣 平生釟三郞
農林大臣 島田俊雄
商工大臣 小川鄕太郞
遞信大臣 賴母木桂吉
鐵道大臣 前田米藏
拓務大臣 永田秀次郞
依願免本官(各通)

寺內、永野兩大將 親補式

【東京電話同盟】二日新內閣親任式終了後 繼續하야 寺內、永野兩大將에 對하야 左와如히 親補式이擧行되엿다

陸軍大將 正三位勳一等功四級 伯爵 寺內壽一 補軍事參議官

海軍大將 從三位勳一等功五級 永野修身 補聯合艦隊司令長官兼第一艦隊司令長官

惡戰苦鬪五日間

林內閣成立經緯

【東京電話同盟】組閣難航五日, 惡戰苦鬪한結果임에不拘하고 드듸어大命을拜辭한 宇垣大將의뒤를맛고 非常時態의重任을지게된 林大將은 誰何를不問하고 宇垣內閣流產의 經緯에鑑하야 全陸軍의支持를바들만한人物이잇슬것은 必須條件이엿섯다 그러므로 元老西園寺公은 第一候補로서 樞密院副議長平沼騏一郞男을 第二候補로서 陸軍大將林銑十郞氏를 奏薦하엿다 二十九日夜 興津으로부터歸京한 湯淺內府는 一日參內後 平沼男을訪問하고 그內意를 確實한바 平沼男은 固辭하엿스므로 大命은 드듸어 林大將에게降下하엿다

林大將은 沈默果斷의 武將으로서 現下時局을 認識하고 軍의信望을 一身에 集中하고잇는同時에 複雜한 部內情勢를 知悉하고, 現下政情이 容易치못함을 알고, 大將은 天賦의 愼重한性格을 發揮하야 暫時御猶豫를 乞하고 御前을退下, 一夜를 沈思默考한後에 지나고 三十日朝明治神宮, 靖國神社에 參拜하야 神明의 加護를祈禱한後 梅津次官을 私邸에 招致하야 部內情勢를 聽取한 結果 이難局에 處하야 組閣着手를 決意하고 鄕黨으로부터 提供된 神宮外苑 日本青年館을 組閣本部에들어갓다

從來政界에 아모根據를가지지 못한 林大將의組閣參謀에는 누가될지 興味로 보고잇던바 林大將이 組閣을 決意하는同時에 招致된者는 興中公司社長十河信二氏 岡田內閣當時의 法制局長官大橋八郞氏, 岡田內閣當時書記官長으로서 內閣의 產婆役을努力한 河田烈氏이엿섯다 後者二人은 林大將이陸相時代의 緣故에依한者이란것은 容易히 想像되엿스나 十河氏가 林大將을擁하고 軍의少壯組의代辯者로서 林內閣의動向을 左右할 使命을가지고 出馬하자 林大將의 組閣開始와 同時에 이에 適合하도록 軍으로부터 獨裁政治急進改革排擊의 指令이 發하게된것은 直接의 關聯性如何는 別問題로하고 자못 注目을 惹起한것이엿다

如斯히하야 全軍의 支持를 바든 林大將의 組閣工作은 極히 急速히 成立될것이라고 觀測되엿든바 後任 陸相推薦에 關하야 陸軍首腦部가 推擧하는 中村孝太郞中將과 林大將側의 要求하는 板垣中將과의 間에 人選에 相違가 생기고 또 海軍方面에서도 雙方의 意見이 相違되엿슴으로 三十一日에 이르러 俄然重大한 難關에 逢着한 것으로 觀測되엿는데 恐懼하압게도 天皇陛下께압서 組閣의 進行狀態에 付히 御軫念하압시는 御模樣을拜察하고 時局의 圓滿收拾은 무엇보다 緊要하다고 痛感하엿스므로 玆에 林大將은 一大決心을하고 大乘的見地로 보아 軍에 一步를 讓하야 如何히든지 組閣을 達成하기로 決意하고 陸軍大臣에는 三長官이 推薦한대로 中村中將을 受諾하기로하고 海軍도 意中에 잇는 末次大將을 抛棄하고 米內中將으로 決定하야 卅一日深更에 이르러 事態는 急轉直下 難局打開의 曙光을 보게된것이다

如斯히하야 一日早朝부터 再次組閣工作은 本軌道에올러 進行을 開始하야 軍部, 內務, 大藏, 司法方面은 자못順調로 進行하엿스나 政黨出身大臣에關하야는 永井, 中島兩氏의 入閣拒否를 만나 當初의 豫定은 不得已 變更하게되엿는데 一日夜부터 二日早曉에 亘하야 最後的으로 努力한結果 五兼任을 하게됨으로 如何튼지 內閣은 無事誕生하게 되것이다 大臣銓衡에잇서서 表示한 林大將의 所論은 大將을 支持한軍의 中堅層組와의 絕緣을 意味하엿스므로 그代表者로서 終始強硬히 主張한 十河氏는 決然組閣本部와 袂別하게까지 되엿든것이다 林內閣의 動向은 好不好를不問하고 一路邁進日本의 主流에 밀려 庶政革新에의 一步를 進行한것을 疑心할수업다 林大將도 確固한 決意를가진模樣이엿스나 組閣當初에 挫折하엿섯다 이十河氏와의 絕緣및政黨出身의 入閣拒否는 果然무엇을 意味하는것일가 急進으로부터 漸進에로의 逆轉 自由主義關係로부터는 歡迎밧지못하고 또閣僚의 面貌로보더라도 이는 今後林內閣의 本質을 暗示하는 同時에 依然히 新舊勢力의 中間存在로서 그運命을 暗示하는것이아닐가

解散? 續開?

陸軍、對議會策協議

政黨側態度緩和되지안는限 議會解散은當然視

【東京電話同盟】中村新陸相은二日午後初閣議散會後 省內大臣室에서 寺內前陸相으로부터 事務引繼를맛고 第一會議室에 直屬長官및 梅津次官以下高等官一同을 集合하야 新任人事를 述하고 다시 梅津次官, 磯谷軍務局長以下 各局課長을 招致하야 所管事項을 詳細聽取하고 當面의 問題가 되여 잇는 對議會策에 對하야 重要協議를 行하엿는데 陸軍으로서는 廣田內閣의 瓦解가 寺內前陸相의 解散主張에 잇든 實情에徵하야 林內閣에 잇서서도 議會에 잇서서 政黨方面의 空氣가 緩和치안코 가든態度를 取하고잇는限 解散을 主張하는것은 當然하다고하고 解散要望의態度에는 變更함이 업다 그러나 馬場前藏相이 編成한 十二年度豫算에對한 結城新藏相의 意圖를들을 必要가잇스므로 即時斷行의 主張에 邁進하기까지는 이르지안헛스나 大體政黨側이 依然反對의 態度를 持續하는限 解散은 不免하리라는 主張을 堅持하고잇다 (寫眞은 中村陸相)

立憲精神發表

林內閣의四大方針 漸進的庶政革新

【東京電話同盟】林大將은 左와如히新內閣方針을表示하야 各閣僚의入閣을求하엿다 따라 同內閣은 이에基하야 庶政革新에邁進하리라고觀測되는데

一、國體明徵의徹底를期하고 漸進的庶政革新을 斷行함
二、外交方針을 確立함
三、國防充實과 倂行하야産業의 振興을圖함
四、憲法의精神及 其條章에恪循하야 公明正大한 立憲政治를 行함

等의四大方針으로서進行하되 政黨을 無視함과 如한일은업스나 黨籍을가진이는 이를離脫하야入閣하기를要請하엿다

二日閣議에서決定 翰長、法制局長官

【東京電話同盟】林內閣의 書記官長及 法制局長官은 二日閣議에서 如左히 決定하엿다

任內閣書記官長(一等) 從三位勳二等 大橋八郞
任法制局長官(一等) 從四位勳三等 川越丈雄

山崎新任農相 昭和會를離脫

【東京電話同盟】農林大臣就任을受諾한 山崎達之輔氏는昭和會를離脫하엿다

宇垣大將長岡別莊에

【東京電話同盟】大命을 拜辭한後 宇垣一成氏는 東京府下國立의別邸에 靜養하고잇섯는데 一日午後二時半 自動車로 同邸를 出發하야 再次長岡別莊에 드러갓다

000875

午後一時初閣議

人事程度의聲明도發表

【東京電話同盟】林內閣은 二日 親任式終了後 林首相以下 各閣僚는 首相官邸에 赴하야 午後一時頃 初閣議를開하고 書記官長 法制局長官을 決定한後 林內閣의 實行할政策, 議會解散問題에 關하야 重大討議를할터이다

【東京電話同盟】林新內閣은 二日午後 初閣議에서 前內閣의 豫算案을 大體撤回하고 新內閣으로부터 後豫算案을 作成할方針인데 議會에對하야 右豫算案을編成할수잇는 相當한日數, 停會를 奏請할必要가잇스므로 그具體的 方策을 協議하기로되엿다

【東京電話同盟】林首相은 親任式終了後 永田町의首相官邸에入하야 林內閣의使命에關한「人事程度의 聲明을發表하기로되엿다

新內閣에對한 各派로부터의期待

聲明보다實行 貴院側의希望

【東京電話同盟】貴族院各方面에서는 林新內閣의面貌에 對하야 左와如히批評하고잇다

林新內閣은 組閣中途 軍部大臣의銓衡에當하야 意見의齟齬를招來하고잇섯는데 多幸히圓滿히解決하야 比較的 短時日中에 組閣을完了한것은 國家로하여금 慶賀에 不堪하는바다 가장重要한藏相椅子에 對하야 財界에 非常한 人氣를 가지고잇는 興銀總裁結城豊太郞氏를 어든것은 確實히 成功이라할하여도조타 閣僚全般에對하야본다면 一、二名을除하고는 모다新進氣銳의 人物이다 이는要컨대 革新의推進力을 軍部에두는 新內閣으로서는 當然한일임으로 相當한期待를하여도조타 新內閣이如何한政綱政策을 標榜할가 아직 具體的으로 判明치안흐므로批評할수는업스나 廣田前內閣과 가티 헛되히소리만노피하는聲明만을하지말고國民이要望하는 革新的諸政策을 實行하여주기바란다 貴族院改革과가튼것도 新內閣이 眞實한 決意가잇다면 貴族院에서도 이와協力努力함에 決코 吝치안는다

庶政一新斷行

民政黨側의態度

【東京電話同盟】民政黨은 林內閣成立에對하야 二日 午前十一時 永井幹事長談의 形式으로서 左와如한 聲明을 發表하야 黨의意向을 明白히하엿다

永井幹事長

廣田內閣이 辭表를 捧呈한後 國民은 不安中 十餘日間을지낫는데 時局이 重大한此際 林內閣이 成立된것은 慶賀에不堪하는바이다 今日의 急務는 國民의 精神作興、東洋平和의具現強化、廣狹兩意義의國防計畫確立、國民生活의再建設을目標로하고 庶政一新을 斷行함에잇다 林首相은 中正果敢한人格閱歷을가진 者로서 이重大한 國家革新期에 當面하야 大政翼贊의 重任을 完全히할수잇는 것이라고 밋는다 新內閣이 모름지기 이時局의重大性을 認識하고 全國民과協力하야 時患克服에 當할熱意와經綸을 갓는다면 吾人도國家的 見地에서서 新內閣을援助하고자한다 생각컨대 外로는 國家存續의 使命을 具現하고 內로는民心의 安定에貢獻하고저 全力을 다하고저한다 勿論 新內閣은 近近 그政綱政策을 發表할것이라고 생각되므로我黨은 이에依하야 新內閣에對한 態度를 決定하고 議會에臨할豫定이다

各大臣兼攝理由

【東京電話同盟】大橋八郞氏는二日午前九時半組閣本部에서 左와如히말하엿다

兼攝하기로 決定된 閣僚中에는 今後專任閣僚로서 補充할者도잇고 또補充치안흘者도잇는데 이는今後四圍情勢를 본後 決定할方針이다 아직아무交涉도하지 안헛다

【東京電話同盟】林首相은 外務文部兩大臣을 兼任하고 山崎農相은 遞信 伍堂商相은 鐵道 結城藏相은 拓務를 各各兼攝하기로 하고 親任式을行하엿는데 內外務、遞信은 適當한時期에適任者를어더 專任大臣을 두기로되엿다 또遞信大臣에는 現滿洲國參議 田邊治通氏를 起用하기로 內定하고 잇스나 同氏는 現在滿洲國官吏이오 또 遠隔한 地에 잇스므로 爲先 山崎農相이兼攝하기로 된것이다

中島氏拒絕理由

【東京電話同盟】中島知久平氏는 商工大臣兼 鐵道大臣으로서 入閣을 交涉바덧스나 入閣條件이 離黨에 잇기때문에 드듸여 入閣을 拒絕하엿다

八面鋒

去月二十三日 廣田內閣辭表提出以來 十一日만에 二日로써 林內閣成立。

◇

閣僚를 훌터보면 首相兼攝이 두자리、其他閣僚의兼攝이 세자리。

◇

그中에도 衆目을끄는자리는 大藏大臣으로서 結城財政의 動向如何이다。

◇

軍事豫算은 認定하나 一般豫算은修正을加하여야한다는것이그의主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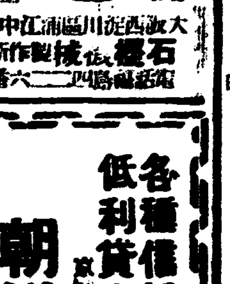
◇

財界가 爲先歡迎하는 모양이나 財界의利害가 곳消費大衆의利害와가튼것은아니오。

◇

物價昻騰의趨勢가 이대로進行된다고하면 馬場이나 結城이나生活安定의 角度로는 一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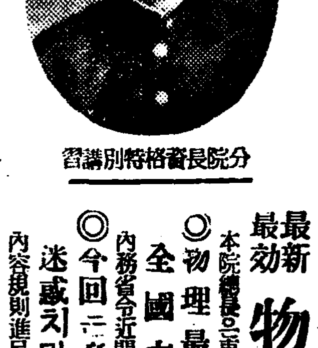
不老長壽 強精回春 更少幸藥
百補丸
京城堅志町 平和堂 一劑十円


金儲 大阪西淀川區浦江中二 石橋製作所

信用잇는最高會社意氣잇는大事業躍進
조흔家庭工業
第一 第二 參十萬圓
株式會社 內外貿易

耳 人工鼓膜
鼓膜破裂으로 귀질알는사람은 念慮無用
大阪北區都島町中二八二一 サンセイ商會

旧年末粗品附大賣出 옷감
韓青商會
京城桂洞町 電光一三九二番


分院長資格特別講習
鮮內唯一
物療電醫員任養成
最新 最効
◎物理最効醫學全科를短期卒業
全國本院卒業自由開院安心
◎今回三卒業後分院長이되는特典이잇슴
迷惑치말고배워서生涯成功의길을求하라
朝鮮高等電醫總本院
京城府黃金町三ノ三四四

宣川保聖女學校生徒募集
▲第一學年約百名 ▲第二學年補缺生約干名
▲出願三月三十日까지 ▲試驗四月一、二兩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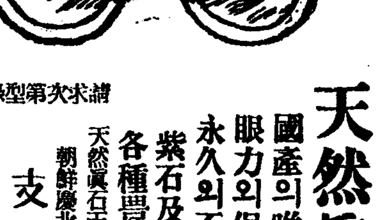
中央基督教青年會學校生徒募集
中等科一學年 二〇〇名 鐵工、木工一學年 各五〇名 英語科一學年 五〇名
中等科二、三學年、英語科二、三學年補缺生若干名
願書提出三月三十一日入學考查四月一日 電光一四二六

朝鮮總督指定 文部大臣指定
一、第一學年 約百名
一、試驗期日 三月二十七日、三十日、三十一日(京城府蓮池町一)
學校生徒募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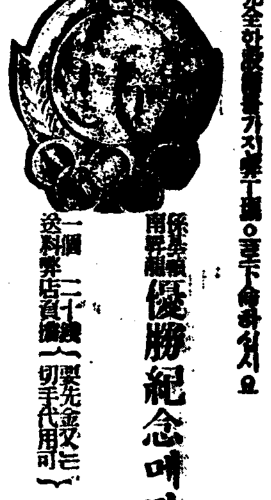
遞信局海員養成所生徒募集
締切 三月十日入學案內要三錢郵券
試驗地 京城、平壤、元山、木浦、鎭海

朝日醸造株式會社特約販賣部
燒酒都賣商 和星商會
仁川西京町
主 李興成 主任 姜興成
電話 一二五三番

產婦人科
京城婦人病院
院長 醫學博士 松本
京城


天然眞石玉眼鏡
國產의唯一은天然眞石玉
眼力의保眼은天然眞石玉
永久히不變은天然眞石玉
紫石及白石、平面、老眼、度數
各種豊富 精密磨石酬應!!
朝鮮慶北榮州 支榮堂本店 主 朴日成
振替京城一五八五三番

平壤府慶上里
徽章專門 赤星工業社
電話 七六六番 振替京城四二三七番


卒業紀念 메달特價提供
優勝紀念메달

各種信託 低利貸出 迅速有利
朝鮮信託株式會社
社長 谷多喜磨
支店所在地 群山、釜山、木浦、平壤、大邱

煌煌四十年·敎育界大光芒 噫!"大崇實"의 悲痛한隕落

一週內廢校手續

最後決議까지의經過

평양숭실전문학교(崇專)를 필두로 숭실중학(崇中) 숭의여학교(崇義女校)등의 삼교는 작년봄이래 모종문제로 경영자측이든북장로파(北長老派)선교회에서 압흐로 폐교할것을 전제로 금춘부터 신입생모집을 중지하기로 가결한후 시기를 기다리고잇섯스나 조선인측으로서는 절대로 세학교를 폐교식힐수업다하야 평양유지 조만식(曹晩植) 오윤선(吳胤善) 김동원(金東元) 고한규(高漢奎)등 제씨가 이문제가 이러나든 작춘이래로 학교존속에 활동하야 왓다 물론 선교사측으로서는 내심으로 은근히 폐교를 히망햇스나 조선사람들측 유력자들의 간망이잇는 이상 쌍방의 주창점의일치를보면 문제업시 세학교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약속햇다

이때문에 우에기록한 유지제씨들은 유력한재단을 엇기로되여 맹렬한활동을한결과 모처로부터 정확한재단을 엇게되야선교사측 실행위원과 다시 절충을한결과 숭의여학교만은 이십여만원의 재단법인 백선행기렴관(財團法人白善行記念館)에서 맛기로되엿고 숭전과 숭중의형제교는 모재단에게 일임하기로 의견의일치를보아 미국선교본부에 인계에대한 최후수속을 밟기로되야 계약서를 작성하고 조인(調印)하려든때에 조선장로회총회장(朝鮮長老會總會長)인 리승길(李承吉)씨등 현직목사들과 경영위원 현 숭중교장 정두현(鄭斗鉉)씨등의 소위 숭중분리운동의 대두로 결국은 인계의정돈을보게되엿다

이뒤를이어서 일일오전열시삼십분부터 소집되엿든 선교사단실행위원장 소열도(蘇悅道)씨가 소집햇든 평양교구선교사단긴급회에서는 숭중분리운동을 유일한 리유로 작년가을에 결의된 경성에서 개최되엿든 선교사회총회에서 가결한대로 금춘의신입생은 절대로 모집하지안코 따라서 일주간이내에 평남도당국(平南道當局)에 폐교수속(閉校手續)을 취하기로 결의를보게되야 세학교의운명은 결국 폐교할밧게 다른길이 업게되엿다

또 설사 조선인측경영위원들이 다시금 보조를 일치하야 급속한 교섭을한다면 어느정도까지의 서광이 업는것도 아니나 현재의 사태로서는 도저히 수습할수업는 형편으로 결국은 사십여년동안 조선교육계에 광휘잇는 력사를남긴 숭실합부는 비장한최후에 직면하고잇다

崇專敎授團蹶起

決議와聲明書를發表

숭전교수단(崇專敎授團)에서는일일오후세시부터 그학교 교수실안에서 긴급교수회를 소집하고 기보와가티 다음과가튼 중대결의를 하는일방 피가끌는 성명서(聲明書)와 부교장당을발표하야 숭중분리파의 맹성을 재삼독촉한바 잇섯는데 전문을게재해보면 다음과갓다

◇決議

一、우리들은 숭전 숭중 숭의 등세학교의 일체존속(一體存續)을기함

二、이목적을 달성하기위하야우리들은세학교일체인계를지지함

三、이때에 분리인계설(分離引繼說)은 세학교를 모두 폐교에 모라넛는것이므로 이를 단연반대함

이월이일 숭실전문학교교수단

▲聲明

과거사십년간 광휘잇는 력사를가진 숭전과 숭중 숭의세학교가 그동안 선교상신념、목적기라 사정에 의하야 현재경영자인 선교회측으로부터 부득이 폐교성명을 보게되것은 이미 세인이 주지하는바이다 그후 선교회측의 아량과 인계교섭위원의 전후사개월간의 꾸준한 노력과 독지 모씨의 출연에 의하야 삼교일체갱생은 여기에서 광을 보게 되여 드듸어 일월십오일 인계에관한 쌍방의 원만한 최종적협정을 마치고 인계정원조인에까지 이르럿든바돌연 이석상에서 위원중한명인정두현(鄭斗鉉)씨가 조인을 거절한결과 모처럼인 세학교의 갱생은 거의 절망에빠지게되고선교회측에서는 기정방침대로 새학년부터 세학교의 학생모집을 모두 중지하기로 재삼표명하엿다 정위원은 조인거절의 리유로서 숭중의분리인계를 주창하나 원래숭중만의 분리양도는현경영자측에서 불응임을 언명하는터이니 그 자체부터 실제성립이 불가능할뿐아니라 이제만보를사양하야 설혹분리가 된다하더래도 숭전 숭의 량교는현재각개의분리인계자가따로업는이상 폐교이외에 다른길이업스므로 분리인계설은 결국세학교모두 죽이는결과에 끗날것임은명백한사실이다 왜그러냐하면 이미말한바와가튼 현경영자측에서 원래분리양도를 거절하고학생모집까지 중지하게된오늘 분리인계운동은 결국숭중자체까지 폐교를 만드는 종국(終局)에를 파하다

이리하여 일부인사의착오된인식과 행동에 따르는 분리인계운동은 력사적 광휘가잇는 이세학교를 모두 폐문의 비경에직면케하야 새로운 일체 인계로 말미아마 련락히약속되엿든 학교의양양한장래는 일거에와해되고 현재세학교 천여재학생과 학생의진로(進路)는 처처히 미로(迷路)에빠지게되엿스니 이를 목연(默然)할책임은 과연누가 질것인가

이상간단한경과의 진술과책임의 추궁과함께 우리들은 이세학교 존폐의 흥망지추(興亡之秋)와 교육상 획기적 기점(基點)에 제하야 우에와가튼 태도로선명하므로써 정두현외의제씨의반성을 촉하는동시에 널리사회여론에 호소하는바이다

"旣定方針實行뿐"

宣敎會蘇、邦兩氏談

선교회실행위원소열도(蘇悅道)씨와 동위원방위량(邦偉良)씨를 선교사회가 폐회된다음 방문하니다음과가티 이야기한다

우리는 세학교경영에 잇서서 경영목적과 정신에위반되는점이만허 압흐로의 경영을바라지안엇섯스나 조선형제들이 넘우도인계를 해달라고하기에 허락햇더니 조선형제가 의합(議合)하지안허 인계할수업다 우리는물론 리승길(李承吉)정두현(鄭斗鉉)씨등의 숭중분리운동을 절대로 인정치안는동시에 신입생은 모집하지안키로되엿다 숭중에서 신입생모집준비를한다하나 학교주인은 우리인이상 우리가 채용한교장이나 교원이 자유로 할수업다

우리는 작년가을의 밋숀회총회에서 결의햇든 기정방침대로 진행하기로되엿고 이제다시의합하야 인계수속을 밟는대도 시간이업다고 생각된다

이때문에 일주일이내로 도학무당국에 폐교수속(廢校手續)을하겟다

우리에게는 아무잘못이업다는것을 이야기해둔다 운운

悲慘한終局

牟校長談

나는 선교사의 한사람이로되시에 학교당국자가 되여서피란잡이끈난합니다

그러나 숭중의분리운동은지기로보나 또는 신의로보아 찬성할수업읍니다

이제모든일은 비참한종국을고하게쫑된모양이니 실로 딱한일입니다

물론 세학교를 개개히 경영햇스면이야 오직이나 조호리까만은 어디그러케재단이 잇겟소 오직세학교는 한결가티 존속되여야지 숭중만살겟다고 숭전이나숭의는 죽으라고 방임할수야어되잇겟습니까?

말도입의로 발표할수업는 내리창을살펴주시요 세상에 잇고십지안은생각도만습니다 운운

三校를死守차

崇專學生大會에서 五個條項을決議

【平壤支局電話】 이일오전 열한시경 숭실전문학교 학생대회를 소집하고 비분강개한 연설이잇슨후 다음과가튼 오개조항의결의를하엿다

一、我等은 崇專、崇中、崇義三校의完全한 一切更生을 期함

二、我等은 分離引繼를主張하야 三校를廢亡에 直面케한 引繼交涉委員中 背信委員의 猛省을 促함

三、我等은 自我慾望의 鬼가된 李承吉等一部分子의 私慾的崇中分離運動을 徹底히 排擊하는同時에 그殘行動의 紛碎를 期함

四、我等은 이重大한 歷史的時期에際하야 私利私慾의 行動을하랴는者는 誰某를勿論하고 排斥키를期함

五、我等은 三校一致存續引繼者의出現을 切實히 希望함

昭和十二年二月二日 崇專學生大會

三水郡에土兵侵入 半時間이나交戰

金日成一派의所行인듯

함남경찰부로부터 경무국에들어온 보고에의하면 이일오전두시경 국경신갈파(新乫坡)경찰서 라난보(羅暖堡)주재소관내 삼수군홍진면두지리(三水郡紅鎭面斗地里)에토병이 잠입하엿다는 급보가잇서 신갈파경찰서에서는 동두시반서장이하 삼십여명이 자동차로 현장에이르러 그곳에올라가 약삼십분가량 교전하야 토병의일단을 대안십사도구경화향(十四道溝京和鄕)방면에 격퇴하고 추격중이라하며 손해는업섯다한다 부락민의말에 의하건대 그들은 대안십사도구로다니며 기회를엿보고 잇는터이라는데 이일밤 하엿든것도 그들의 일단다섯명이엇든모양이라한다

新北靑驛構內 事務室에出火

【警務局入電】 이일 오전두시경 함경선 신북청역(咸鏡線新北靑驛)구내 기관고에서 발화하야 동건물을 전부 태우고 네시경 진화하엿는데 원인은 전혀 불명이며 손해는 상당한 거액에 달할모양이라한다

이일오전 두시경신북청역(新北靑驛)휘하리안에 잇는청진기관구신북청 분구준비게(新北靑分區準備係)사무실에서 불이나서 목조건물한채를 전부태워버리고 오전세시반에 진화하엿다

삼전(森田)준비계원은 차고안에잇는 기관차를 끄러내기위하야 불속에드러가서 두대의 기관차를 무사히 구원해내엿는데 화상을 입어웅중하다고한다 발화원인과 손해는방금조사중이다

緊急重役會議로 對策을講究中

京軌從業員動搖事件續報

기보=임금을 올려달라고하야 경성궤도회사(京軌)종업원의 일부가 동요하고잇다는것은 작일석간에 보도하엿거니와 회사당국에서는 이일오후 긴급중역회(緊急重役會)를 소집하고 이에대한 대책을강구하고잇스며 일편 종업원들도 이중역회의 동향(動向)여하만 주시하고잇다

花鬪博徒打盡

이일새벽 세시반경 시내수송정(壽松町)십륙번지 장님 리병구(李炳九)의집에서 가튼주소에서 빠자사하는 리정수(李正洙)(?)리시영(李時榮)(?)최병두(崔秉斗)(?)신당정(新堂町)칠십팔번지 신태원(申泰元)(?)의네사람이 한번에이전씩 걸고화투노름을 하고잇는것을 순행중의종로서원이 발견하고 본서에인치하엿다 판돈이원이십륙전과 화투한벌도 그자리에서 압수하엿다

殊常漢의假紙幣

바지가랑이에서發見

어수룩해보이는시골사람

일일 오전한시삼십분쯤에 부내 룡산역부근에 거동이 수상한자가 배회하고잇는것을 밀행하든 룡산경찰서사법형사가 체포하야 그의 신체수색을 하고보니 바지외편발목에 대님친속에다가 현금일백원을 감추어둔것을 발견하야 그출처를 추궁하엿스나 확실한말이업서 동서에 동행취조중이라는데 그는 본적을 경남상주군상주면중덕리(慶南尙州郡尙州面中德里)에둔 현주소부정의 김정태(金正泰)(?)로또 그의몸에는 십원지폐두장사이에 지화색조히백여장을너허서 십원지폐 백장으로 보이게하는 지폐뭉치를 차저내엿는데 일견천원지폐를 가지고 묘한수단으로 기인취재한것이 판명되야 현금백원또 거짓지화 천원뭉치로기인취재한것이 판명되엿다하며 룡산서에서는 그의행색을 계속취조중이라한다

橋北町에火災

일일오후 열한시사십오분경에 시내교북정(橋北町)일백십팔번지 양품점(洋品店)김영태(金英濟)의집에서 불이나서 목조이층한채를 전소하고 이일오전령시사분경에 소방서원의 힘으로 겨우 진화되엿다 손해는 천원가량이며 원인은 화루불에서 난듯하다고한다

新設町에雪中棄兒

일일 오후일곱시쯤 되여서시내신설정(新設町)일백삼십칠번지의 칠십삼호음윤근(陰潤根)(?)의집 대문아페 나흔지약사오일

외로운길손들!

白雪을비웃는그죽엄

봉을등지고 저세상으로 떠난 외로운길손들

◀황해도송화군(黃海道松禾郡)에 본적을두고 일정한주소가업는 윤량겸(尹亮謙)(?)은 본정서의 시료권(施料券)으로 부민병원(府民病院)에서 치료를밧고잇든중 일일오후네시오십분쯤에 내출혈이 심하야 쓸쓸한최후를 짓고말엇는데 시체는유족이 업는관계로 경성부에넘겻다고한다

◀일일밤 부내서사헌정(西四軒町)남산장(南山莊)뒷산 소나무에 천순복(千順福)(?)이라는소년이 목을매고죽엇는데 그는얼마전까지 본정(本町)모식당에서 고용사리를하고잇든 무의무탁한 소년으로 생활난으로 그와가티 목숨을끈허버리고 만것이라한다

[illegible] 公園……

京城을中心으로 積雪二寸八分

今年드러두번째大雪

◀일일오후세시반경부터 부슬부슬나리기시작한눈은 이일오전열시까지 강설량(降雪量)으로보아 삼사미리요 눈이싸인기피는 약두치팔푼가량으로 금년겨울에드러 두번째되는 큰눈이라고하겟다 이번눈은 북조선지방을제하고는 대체로보아 전조선적으로 나린것인데 강릉(江陵)지방은 삼십사미리나왓다고한다

◀겨울이 겨울구실을 하려면 눈이 만히와야한다하지만 례년에비하야 반도쯤되는 강설량이다

◀눈이 푸근히싸혀 보리바틀 더퍼야하며 오는해의 농작물의 풍흉(豊凶)도 강설량의 다과에 달렷다고 일주 로농(老農)들이 말하엿거늘 눈이 와다고 조와하는것은 어린아이들 뿐아니라 누구던지 조와하는것이 일반으로 다。

◀『오퀴쓰』의 창념어로 보아는 은일색(銀一色)의작안 피로한 눈(眼)요기는 이 눈(雪)이 마타보는 특별서ー비쓰다。

◀속담에 『눈오는날은 거지빨래날』이다 녹는 말이 잇거니와 이 푸근한 날세는 항용 고기압의 작히로 살을 어이는듯한 추위에 쫏겨가는수가 만컨만 측후소에 무러보니 오후부터 날이 흐릴것이며 별로 추워지지는안흐리라니 이것은 인정업는 자연이 간혹쓰는 선심이라고나할는지……。

陜川一帶에大雪

【陜川支局特電】 지난일일오후부터쏘다지기시작한눈은 적설이척에달하야 자동차선로는 불통된곳이만코 전신전화선(電線)도수개소나끈허저서 통신도불통중이라한다

大邱中心으로大雪

【大邱支局特電】 지난일일밤부터쏘다저내린 눈으로말미암아 대구를중심으로하고 성주(星州)안동(安東)포항(浦項)영덕(盈德)경남합천(陜川)창녕(昌寧)거창(居昌)등지에 왕래하는 각자동차선로는 전부두절되여 교통이막혓다 그런데 눈은지금도 오히려 내리고잇다

江陵엔積雪三尺

悲慘한山間地帶의住民

【江陵支局特電】 지난일일오전두시경부터 계속하야 동해안일대에 눈이 내렷고 이일오전열시부터 현재에 벌서 적설삼척에 달하야 강릉(江陵)을 중심으로한 각선교통은 막혓다。구력년말을 압두고 강릉군의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오천이넘는 궁민(窮民)을 비롯하야 고기잡는 시기가 지나기때문에 생활의 근거를 일허버린 어민삼천여명의 가지고잇는 해안지방의 궁경은 상상하기에도 끔찍스러운일이만타。그들 비참한 궁민들을 위하야 더구나 지난 여름에 수해를 당햇든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동정의 눈물을 흘리지안흘수업는 기맥힌 처지에 빠저잇다。

興安丸의處女航海

一日、釜山에到着

夜間마다金剛丸과交代出航

【釜山】 관부련락의 호화선 금강환(金剛丸)의 자매선인 흥안환(興安丸)이 이번준공되여지난삼십일밤에 하관(下關)을출항하야 처녀항행을하야 이일아침부시반에 부산잔교에 도착하얏는데 동선은 금강환과동일하고 도동금강환과 야간마다 차례로 련락하게되므로 관부련락의 호화판을 전개하게되엇다고한다

天氣豫報

概況 有勢한 低氣壓은 日本內地中部南海上에잇서 北東으로 進行하고잇다 高氣壓은 東西伯利亞에 七七六粍、揚子江流域에는 七七一粍를 보이고잇다 北滿洲는 호려저잇스며 南滿洲는 日氣가 개여저잇다 朝鮮은 大槪로 降雪이나 南東岸은 비가내리는곳도잇다 日本內地는 호려저잇고 中部南端은 風雨가 强하며 東北地方은 降雪이잇다

豫報 今夜는 개엿다호렷다하며 明日도갯다 京畿道全區

昨日最高 零度九

同 最低 零下六度八

今朝最低 零下四度四

今日正午 零下三度

運動競技

立敎大學하키ー優勝

第八回全日本아이스·하키ー選手權大會는 二十九日부터 連三日間 芝浦링크에서 行한바 다음의 戰績과가티 立敎大學팀이 優勝하엿다

【準決勝戰】

明大3 (2……0 / 0……2 / 0……0 / 1……0 / 0……0) 2慶大

立敎17 (7……0 / 5……0 / 5……2) 2朝鐵

【決勝戰】

立敎7 (3……0 / 4……0 / 0……1) 1明大

觀相學者(관상) 裵相哲先生

실패(失敗)를 면코저하거나、성공(成功)을 바라는분은 곳오시오。자무얼? 제평생、제가일지!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망치는 고집이오。선생의판단대로 횡재(橫財)할분과 어다가 실패(失敗)할분이 금변에도 이기

심상명이옹 한번 선생의 큰직한판단을밧으라!

科目 觀相鑑定二圓。一年身數一圓。入學、交渉、訴訟、婚姻、六爻占 四柱占各一圓。期米市況五圓。鑛産四圓。流年三十圓。作名二圓。四柱(子孫)二圓。紫微斗數(四柱)五圓。其他各一圓。

處所 京城府鍾路五丁目二二七の二五 (東大門內初終點電車停留場南側)

新民謠 가슴에지는꼿

金仁淑 北方消息

콜럼비아레코ー드

朝鮮醫務學會

本會講義錄으로卒業에依하야合格保證、特典으로鮮人醫師試驗問題集等一冊無料進呈함(但入會者에限함)

京城府永樂町一丁目二番地 朝鮮醫務學會

죽은깨는 피부정리로

보기흉한 죽은깨는 피부정기로 완전히업서지고 다시재발되지안으니 주저마시고곳쓰시요 약가、중종용 四圓、경증용 二圓、송료 三十五錢 京城鍾路四丁目 私書函光化門局四八號 發賣所 合資會社 日光堂藥品部

セブランス醫專病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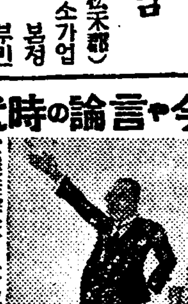
檢眼無料

京城驛前 電(本)五一二二

◎急告

世富蘭偲商號를假用하야奸利를取하는奸商이 京城、平壤等地에有하오니 諸位는 注意하시압소서

今や言論の時代よ出でよ雄辯家



◆演說の事なら何んでもわか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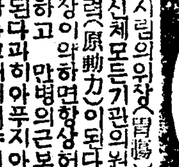
雄辯の秘訣を公開す

式辭と演說挨拶の仕方

一五千十部限り特價一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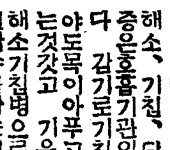
發賣元 大阪市東淀川區西中島町 振替大阪五六〇一四番 現代出版社

속병 체증엔 경오ー가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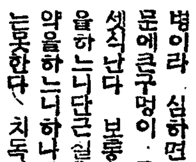
사람의위장(胃腸)은 신체모든기관의원동력(原動力)이되는다 위장이약하면항상허약하고 만병의근본이되며 속병、체적이되여생명을빼앗기게되니 두려울지아니하리오 경오ー(KENGO)는 일시적이아니고 위를보하고위장의근본조직을 다시 소생하고소화를식히는 작용이잇다 약가(價)도 다른약보다 만흐나병이잘 낫고몸을보하야살이 찌고음식이맛잇게 먹게되니 돈갑시 아니한고명한약입니다

기침 해소엔 에치세ー가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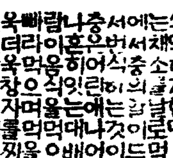
사람이 생명이잇슴동안에는 호흡을하는데 이호흡기관에병이잇스면 생명에관계가된다。해소、기침、담천촉증은호흡기관의병이다 신성당의「에치세ー」는호흡기관을윤택하게하고담을삭히는 맛잇는약이다

치질엔 엥구루가제일



치질은 누구든지 흔히알는병인대 대단히괴로웁고 더러운병이라 엥구루는 홍문에넛키도하고 바르기도하는 편리하고효력이강한 약인대 암치질 수치질 피나고 고름나는치질 가려웁고아푼치질에잘듯습니다 약갑중한데는이원 경한데는일원이오 경성서대문신성당으로 주문하시오

회충 촌충엔 오리가 도루사 가제일



약을써보시고 만일무효면 언더한책임이든지 집니다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京城西大門電車停留場前側(五) 電話光化門三一四番・振替京城四九五〇番

昭和十二年 學校選擇の指針 推奬校（その一）

日本電報通信社
朝鮮日報社
推奬

丸善墨汁

アテナインキ
ATHENA

日本大學

總長 法學博士 山岡萬之助

學則 各部科校所在地宛（郵券同封）御請求ノコト

▲東京 神田三崎町校舍 大學 法文學部、商經學部、專門部 法、文、商、經、宗、藝、社會、高等師範部 各科

▲東京 本鄉校舍 專門部 齒科

▲東京 神田駿河臺校舍 醫學部、專門部 醫科 第一外科

▲東京 工學部、專門部 工科

▲大阪 大阪校舍 專門部 法、商 各科

立教大學

東京市豐島區池袋

豫科第一學年 文科約一〇〇名 商科約一六〇名
願書締切 三月三十一日
試驗期日 四月五日、六日
試驗科目 國語、英語

學部 文學部＝英文學・史學・宗教學 經濟學部＝經濟學・商學 各科若干名
願書締切 三月三十一日
試驗 四月九日

○注意＝入學案內贈呈

早稻田大學

第一高等學院（文科・理科）
第二高等學院（文科）
專門部（政治經濟科・法律科・商科）
高等師範部（國語漢文科・英語科）
專門學校（夜間）（政治經濟科・法律科・商科）

○規則書ハ郵券二錢相添へ各事務所ニ請求ノ事

拓殖大學

學長 永田秀次郎
創立 明治卅三年
所在 東京市小石川區茗荷谷町
學則及志願票 要郵券貳錢

◎大學豫科 志願票受付 三月廿三日迄 試驗地及試驗期日 東京・福岡共 三月廿四・五日
◎商學部 志願票受付 四月十五日迄 試驗地 東京市
◎專門部（晝間）志願票受付 四月十五日迄 考査地 東京

（詳細一月十五日附官報參照）

中央大學

學長 法學博士 原嘉道

東京・神田・駿河臺

大學豫科（第一豫科（晝間）第二豫科（夜間））第一、二學年 入學試驗 願書 三月三十日迄 試驗科目 國語、漢文、英語（獨語） 四月一、二日

大學部 法・經・商（晝夜）第一學年 入學試驗 願書 四月五日迄 試驗科目 國語、漢文、英語（獨語） 四月七日

專門部 法、經、商（晝夜）第一、二學年 入學試驗 願書 第一學年四月八日迄 第二學年四月三日迄 試驗 四月五日より

○詳細 一月十九日附官報參照（學則入學案內申込次第郵送）

專修大學

總長 法學博士 男爵 阪谷芳郎
創立 明治十三年
東京市神田區神保町
入學案內贈呈

大學豫科（第一部・第二部）（中學四年修了 中等五年卒業）
學部（晝・夜）經濟學部、法學部
專門部（夜）經濟科、法律科、商科

資格附與
學部 學士號、高等、中等教員免許狀、特許辨理士、計理士
專門部 計理士、實業教員免許狀、高等文官豫備試驗免除

明治大學

總長 鵜澤總明
創立 明治十四年
本校 神田區駿河臺
家政科所在 東京杉並區和泉町
學則 郵券封入各學則係宛

豫科（法學部・商學部・政治經濟學部）第一種（三年制）第二種（二年制）
○願書受付 三月一日ヨリ ○試驗期日 第一種四月五日 第二種四月一日

學部（法學部・商學部・政治經濟學部）各第一學年
○願書受付 四月一日ヨリ九日迄 ○試驗期日 四月十日

專門部（法科・政治經濟科・商科・文科・女子部）（晝間・夜間）
○願書受付 三月一日ヨリ四月六日迄 但シ女子部ハ一月十五日ヨリ四月十五日迄
○試驗期日 四月七日、八日 但シ女子部ハ入學銓衡ノ上隨時入學許可

新聞科（夜間）大學專門學校二年以上ノ者一ケ年卒業、詳細ハ學則

慶應義塾

創立 安政五年
所在地 芝區三田
豫科 神奈川縣日吉臺
高等部 芝區三田

大學豫科（文、經、法、醫）第一學年
入學試驗期日 身體檢査 三月十一日―十三日 學科試驗 三月廿二日―廿四日 口頭試問 三月廿八日

高等部 第一學年
入學試驗期日 身體檢査 三月十一日―十三日 學科試驗 三月廿九日―卅一日 口頭試問 四月一日

○申込期間 三月一日迄（規則書及志願心得書要郵券貳錢）

東洋大學

學長 文學博士 □□村作
創立 明治二十年
所在 東京小石川區原町
案內書 申込次第進呈

學部（文學部三年制）
豫科（二年制）
專門部（三年制）

◇特典
◇願書受付 第一次 三月卅一日 第二次 四月十日

駒澤大學

創立 明治十五年
本邦最古ノ佛教大學
所在地 東京市世田谷區深澤町（玉電駒澤大學前）

◎豫科 第一學年 第二學年 百二十名 百六十名
◎專門部 佛教科 四十名
◎高等師範科（國漢文科・歷史地理科）八十名 五十名
◎學部 佛教・東洋・人文各學科 若干名
◎願書受付 四月五日迄

特典 高等師範科は國語漢文、歷史地理の中等教員無試驗檢定の特典あり
學風 佛教精神に基きて身心を鍛錬し

法政大學

總長 小山松吉
創立 明治十三年十二月
所在 東京麴町富士見町
學則 郵券二錢封入 志望科敎務課係宛

法文學部 法律學科、文學科（英文・獨文・國文）、哲學科、政治學科
經濟學部 經濟學科、商業學科
大學豫科（第一部・第二部）（三年制）
專門部（第一部・第二部）法律科、政治科、商科
高等商業部（晝間部・夜間部）
高等師範部（國語漢文科・英語科）

國士館專門學校

總長 水野鍊太郎
館長 柴田德次郎
學則 要郵券二錢封入

◎出願期日 三月三十日迄
◎試驗日 四月一日、二十三日兩日
◎試驗科目 國語、漢文、劍道又ハ柔道
◎國語、武道（劍柔）中等教員無試驗檢定（漢文科無試驗檢定申請中）

東京市世田谷區世田谷町一丁目

文化服裝學院

洋裁專門

入學日 四月八日
入學資格 高女卒以上
本科・高等科・研究科・師範科 速成科
「高等科敎員養成科」ハ中等家事科敎員、裁縫科有資格者ニ限ル

文化裁縫女學校改
洋裁學校中唯一ノ文部大臣許可財團法人
學院長 經濟學博士 杉本正幸
東京市澁谷代々木山谷 新宿・京王電車新町側

寄宿完備 學則送呈

名古屋藥學專門學校

◇募集人員 第一學年約一五〇名 願書受付 自二月一日至三月十五日
◇試驗期日 三月二十一、二十二、二十三日 本校ニ於テ
◇試驗科目 化學（無機）、英語、數學、代數＝中學校卒業程度
◇受驗資格 中等學校卒業者及ビ專檢合格者、其他
校則並ニ入學案內希望者ハ（二錢切手封入）本校ニ申込ムベシ
◇本校位置 名古屋市外鳴海町
（詳細昭和十二年一月十日官報參照）

東京高等獸醫學校

獸醫學博士・醫學博士
校長 武藤喜一郎
創立 昭和五年四月
所在 東京市世田谷區下馬町（省線澁谷驛ヨリ玉川電車三軒茶屋下車）

◆入學資格 中學及甲種實業學校卒業者
◆許可方法 無試問檢定及試問檢定
◆出願期日 自一月十日至四月二日 試驗 四月四日 受驗地 東京・大阪

特典
▲東京府獸醫師試驗免除
▲無試驗檢定
▲官公私立大學專部入學資格
▲高等文官豫備試驗免除
▲陸軍獸醫部依託生徒採用

詳細 郵券封入 御問合レ

橫濱專門學校

校長 司法大臣 法學博士 林賴三郎
所在 橫濱市六角橋
校則 要郵券貳錢

高等商業科 貿易科（英・支・佛・西語）
法學科（司法・行政）
試驗地 橫濱、名古屋、廣島、京都、東京、札幌、京城、大阪、福岡

帝國女子醫學藥學專門學校

校長 醫學博士 額田晉
所在 東京市大森五丁目

△醫學科 入學願書 入學試驗 三月廿六日迄 三月廿七、八日
△藥學科 設備ノ上大學ヲ許可ス

帝國女子高等學園 本科 二年 家政科 三年 研究科 六ケ月

攻玉社高等工學校

校長 工學博士 …
創立 大正十年
學則 要二錢郵券

◎（夜間）土木工事生募集（修業年限三ケ年）
◎試驗期日 自四月十一日至十三日
◎入學資格 中等學校卒業又ハ同程度ノ者
◎特典 無試驗入學の制あり

東京市品川區西大崎

財團法人 國民工業學院

通信教授

總長 法學博士 井上角五郎
學院長 工學博士 …
所在 東京・銀座・交詢ビル

本院の特色 本學院は官・公・民營工場主要者の多數が協力して設立した財團法人で、最も低廉で…

本科＝機械科・電氣科・工業化學科・冶金科・土木科・建築科
○修業期間＝各科共一ケ年 ○學費
○詳細は內容見本を見給へ

武藏高等工科學校

▲募集人員 第一學年 電氣工學科 機械工學科 八十名
願書受付 一月十日より
實驗・實習設備の飛躍的增設
所在地 東京市大森區北千束町
詳細は要郵券二錢

東京高等無線工科學校

校長 理學博士 北里 …
學則 要郵券二錢
就職 最適確

◆晝・夜間部
◆試驗地獄解決 → 入試率先撤廢
◆給費生ノ制アリ
◆修業年限（高等科・普通科）二ケ年修了後高等科へ進級セシム
◆願書締切期日 三月末日

東京第一
東京市本鄉區お茶の水元町 電話小石川 二九二二・五九〇一・七〇四番

東京高等工學校

校長 有元史郎
所在 東京・芝・芝浦
學則 郵券封入申込

○入學資格 高等豫科＝中學四年修了 本科＝中等學校卒業者
○學科 土木工學科、建築工學科、電氣工學科、機械工學科、應用化學科
○受驗地 東京、大阪、廣島、福岡、名古屋、仙臺
○願書受付 二月一日ヨリ ○受驗日 四月一日（學則參照）

女子高等學園

園長 高峰秀三郎
創立 大正十五年
所在 東京市本鄉區…
學則 郵券二錢封入

本科 家政科 二ケ年
家事裁縫科 一ケ年
入學資格 高女卒業又ハ同等以上ノ者
一般 願書受付 一月八日ヨリ（學歷不問ニシテ入學隨時）
寄宿舍ノ設備アリ
電話小石川四四六〇

日本女子高等學院

文部大臣認可
學長 松平俊子

國文科（中等敎員無試驗檢定特典有）
英文科（中等敎員無試驗檢定特典有）
家政科（良家の主婦養成本位 一年又は二年卒業）
入學資格（高女卒業又は同等以上）

東京市中野

共立女子藥學專門學校

校長 藥學博士 長田捷二

文部大臣指定
卒業生の特典 無試驗ニテ藥劑師免許證ヲ下附セラル 中等教員（化學科）無試驗檢定ノ資格アリ
高女卒業生ハ無試驗入學ノ制アリ

東京市芝區芝公園六號地
寄宿舍設備完
◎願書受付 三月廿五日迄
學則入學案內（要二錢郵券）

日本女子齒科醫學專門學校

校長 醫學博士 河合越?
創立 明治四十三年

特典 學士號認許 無試驗開業 文部大臣指定
本校特色 本邦最古の歷史、完備の校風 敎育內容の充實、學費は少額なり 婦人職業の王座齒科醫となる捷徑
給費生卅名採用
◎校長推薦ト入學許可 ◎本年入學者定員 百五十名
（詳細一月十一日官報參照）八本校ニ照會あれ（詳細要郵券）東京市大森區大岡山

大連高等商業學校

新設
創立 昭和十一年
所在 大連市
詳細 二錢郵券封入本校宛照會

募集人員 本科約百名 專修科約五十名
出願期日 本科自一月七日至三月廿五日 專修科自二月二十日至三月二十一日
試驗期日 本科三月…
試驗場 大連、東京、…
試驗科目 英語、國語、…

日本女子高等商業學校

創立 昭和四年
校長 嘉悅孝

◎募集人員 本科（三年制）百名 專修科（一年制）五十名
◎入學資格 高女卒業程度
◎特典 中等教員無試驗檢定 計理士無試驗開業

東京市…

大倉高等商業學校

校長 古館市太郎
創立 明治三十一年
所在 東京赤坂區葵町
學則 郵券封入申込ノ事

◎本科（高等商業）第一學年約二〇〇名
願書受付 自二月一日至三月二十日
試驗期日 三月二十一日
◎附設中等科 第一學年 一五〇名

中央速記局給費生募集

昭和十二年 第一回
東京・世田谷・成城 中央速記局養成所
（東京局私書函第三號）

▼目的 帝國議會ヲ初メ全國各地ノ速記ヲ業トスベキ官民界速記者ヲ養成ス
▼資格 … ▼待遇 …
▼給費 … ▼募集 …

昭英學園

高女在學生組
高女卒業生組
所在 東京澁谷區…山町七

女高師其他專門學校受驗科

東京寫眞學校

校長 結城林藏?
創立 明治四十四年
所在 東京品川驛前
學則 郵券二錢封入

◎本校ハ實地ニ役立技術者ヲ養成ス ◎就職ヲ紹介ス
◎失職ハ技術者ニナシ學力年齡ヲ問ハズ隨時ニ入學許可ス
◎寫眞入門ハ入學後一ケ年本科三ケ月修業 ◎募集人員各一〇〇名

芝自動車學校

公認
創立 陸軍自動車隊長 山川少將指導
教員は全部陸軍自動車隊出身者

◎自動車教習の正則教授は本校の特色
◎在學中運轉免許試驗を取る迄責任教授

東京高等無線電信學校

校長 從四位勳三等 久世篤次郎
所在 東京本郷眞砂町

●目的 無線通信士及無線電信技術者養成
●入學特典 出身學校長ノ推薦アル者ハ無試驗入學許可ス
◎入學資格 中等四年修了
◎修業年限 晝夜間共貳ケ年
詳細ハ（入學案內、學則、卒業生就職明細表）參照
◎就職 非常時無線工業ノ旺盛ト海運界ノ活況ニ依リ就職最モ安全

工學院

創立 明治廿一年
所在 東京市淀橋區角筈
電話四谷 五八五六

土木、機械、電氣、建築、造船、採鑛冶金、應用化學、航空學科
航空學科新設
受付 自二月二十五日 至三月三十一日
內燃機關專攻分科增設

中野高等無線電信講習所

所長 男爵 沖貞男
給費生の制度あり 寄宿舍完備

◎本科 中學卒程度
◎普通部 …
◎… 一年
◎豫科 …
△近來無線界ノ發展ニ伴ヒ無線技術者ノ需要多シ

東京市中野區江古田四ノ一五二五 電話中野三一二一・五九七三

東京寫眞專門學校

所在 東京市澁谷區幡ケ谷本町
學則 郵券二錢ヲ要ス

生徒募集 本科約四十名
入學資格 中學卒業又は同等以上の者
願書受付 月八日ヨリ四月貳日迄
試驗科目 英語、數學、理科（物理、化學）

村田簿記學校

校長 村田謙造
創立 明治四十一年
所在 東京市神田區神保町電停際
電話 九段 二一五五

▲學科目 簿記學（商業、會社、工業、銀行）專門
▲期間 甲種全科目三ケ月卒業 乙種全科目六ケ月卒業
▲入學日 毎月一日、十六日（無試驗入學許可）
▲特色 本校は帝都における最古の歷史を有し卒業生は一流の銀行・會社官公署等に就職し活躍し居れり

東京高等主計學校

校長 城生菊四郎
創立 明治十六年
所在 東京牛込河田町

△主計專門科（一ケ年）一〇〇名、實務ニ適シ就職容易
△高等主計科（專攻）計理士養成、會計士試驗認許
◎試驗 △期日 三月廿八日、四月六日 △科目 英語、代數、國史、作文
合格者一覽表送呈
◆學則要郵券二錢

金華學園 正教員保姆講習所

園長 佐合滋種
所在 東京市澁谷區代々木富ケ谷二丁目

▲入學資格 中學・高女卒（六ケ月）高小卒（一ケ年）
▲願書受付 一月十日ヨリ三月末日マデ
▲試驗 四月五日

東京豫備學校

公認
四月八日開始 午前部・夜間部 願書受付開始 無試驗入學許可

○世は非常時だノスピード時代…
○○入學資格 小學卒業同程度
○ 二年卒業 …
○ 無代進呈
東京市牛込區…

世界의「長壽」山脈
최고 봉은 一四六歲
싸베트땅의「안드레ー」로인
조선안에는구십륙세가셋뿐

당상학발 천년수(堂上鶴髮千年壽)라하야 효자들은 부모들의 천변이나 기리사지시사고 빌기도하지만 욕심이 너머커서 그런지 하느님이 한사람에게도 그런수명을 점지하옵이 업습니다. 그저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라 해서 칠십만사라도 무던한 장수로 역이게되엇습니다.

현대의 의학이 발달이되사람의생사에대한 신비를 밝혀낸드시 떠들지만 수명에 대한 비고(秘庫)의 문은아직여러제킬염두도 못내고 잇습니다. 건강하면 오래산다하지만 반드시 장수를 의미 하지못합니다. 삼신산의불사약을 캐어먹으려 다니든진시황이 명살이나 살앗습니까 호르몬이니 비타민이니하지만 우리수명과 어떤인연이 잇는지아직 깡깜속에잇습니다. 그저 제가가진천품그것을 가지고 보통사람과 꼭가튼 생활양식에서 남보다 장수한다는데는 기필코 비밀은잇지만 그비밀은 장수하는그사람도 모릅겟니다.

그건그러라하고 숭엄한 히말라야 최고봉가튼장수자는 업는가 독일에서 최고령자라고하는「푸리ー드릿히·자도우스키ー」로인(一八二五年十月生)은 금번에백열두살입니다 파란이라나라의국경에가차운 어느한촌에나서 요즘까지 가난한소작인노릇을하며 지내왓습니다 그러나지금은「나인멘부르흐」양로원에서 여생을보내고잇는 허리도 안꾸부러진이가 위풍당당합니다

(사진―자동차에서내리는자도우스키ー로인)

◇

독일의 이로인은 못케도안되게 차베트동방 조지아의사토바ー」촌종영농장에서 일하고잇는농부「안드레이·그뷔나뷔시리」란 노인은 놀라지마십시요, 일백마흔엿서살의 봄을 맛게되엇습니다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원기왕성이요 기억력가튼것은 젊은놈도 못따르게 강하다하니 나이록 침신에 세월을 보내는 범위 어떠하며 어떠한가.

젊은 후인과 담화하는「안드레ー」(사진 은인) ◇

世界一의長壽村
한집권속칠십명에
평균년령이구십세

인도사람은 조숙하니만치 성숙는다고하지만 그것도 빨간거짓말인 못십습니다. 무서운례외가 업연히 드러나잇스니까요「룹베인」시「빌카라불」이란동리는 아마 세계에서 제일가는 장수하는사람들의 동리라고평판이놉습니다. 엄마전 이층꼭대기에서 떠러저서 비명의 죽엄을한「사라바이·님」마나님은 나히 일백스무다섯살이엇는데 그분의 일가권속이 이동리안에 열두가구정에살고잇습니다 그런데 백살먹은 맛딸을 첫손으로 꼽고 오대손에 이르기까지 대가족 칠십명중에 여든살 일흔살은 흔하고 엇재든 평균년령이 아흔살이됩니다. 일백열살되는 로인은 발을 이동리의 종대(宗長)로 제직하고잇습니다. 이동리에서 제일나이 적은사람은 역시 이가문에서난 한살먹은 애기입니다. 이러고보니「사라바이」마나님의 생산능력이 얼마나 왕성하고 우수한것을 알수잇지안습니까.

작년시월구일에 총독부에서 조사한조선의 고령자를보면 백살넘은분이 한분도업습니다. 최고로 아흔여섯살되는이 (금년에도사라잇다면 아흔일곱살이되겟지요만) 세분인데

◇서울 황금정칠정목이십수번지에사는 홍씨로인, 자손이두분

◇역시서울 황금정오십팔번지에 사는 송씨, 자손은 미상입니다

◇그리고 강화군불은면두운리에 사는 송모주로인 자손이 열다섯 이랍니다.

『악영향!』하지만 영화에게 죄업다
어른 본위의것만 맨들지 말고
아동을 위한것이 나홀일

활동사진은 지금에 잇서 벌서 우리생활과 떠나려야 떠날 수 업는 것이 되야 잇습니다. 음악이나 그림이 필요한 그 정도록, 아니 그보담도 더 필요한 정도로 되야 잇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모래도 어린 애기들은 어른과 갓지안습니다. 어른에게 필요하다고 해서 꼭 어린 애기에게도 그대로 필요하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린애기네에게 활동사진을 마음대로 보이도록 해서 과연 조켓습니까? 안그로 인하야 교육상 재미업는 결과는 미치지 안켓습니까? 부모나 학교당국자로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활동사진은 교육상으로 여러가지의 도움이 되고 잇습니다. 첫재 먼 지방이나 각종의 공장이나 일터이다리고 가서 견학시키기 어려운 곳을 이야기로만 하는것보담은 효과잇게 알리어 줄수잇고 둘째 동물이나 식물이나 그런것도 입일이 표본을 보여주기 어려운것을 보통그림말으로보담도 머리에 백히도록 할수잇고 셋재 책으로가르치는것보담 무엇이나 기억하기수워서 조코 넷재 그보담도여러가지로 어린 머리ㅅ속에다가 넓다란 상상력을 길러 주어서 조습니다. 어린애기들에게 잇서 활동사진이란 결코 해로운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것을 해롭게만 본다면 그야말로 교육방법의 하늘천따지를 모르는 완고입니다.

×

그러나 어린애기들은 어른과가티 모든사물에 대하야힘센 판단력이 업고 한갓보고 듯는 바를 흉내만 내게 되는 모방심이 만흔 까닭으로 활동사진 그대로 해보려고 덤비게됩니다 또 깜깜한 속에서 남몰내 어떠한 일이든지 할수 잇는 까닭으로 괴상한 소리도지르고 괴상한 작난도 하게 되는동시에 자조 그런데를 드나들게 되다가는 군것질하는 버릇까지 밧긋이 생기게 되는까닭으로 손이거칠어지는 수도 비일비재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어린 머리로 오래ㅅ동안 그복잡한것을 드려다 보고 잇는 것은 확실히 위생에 해롭습니다. 더구나 남녀서로만나는 장면가튼데서 성적조숙을 이르키지 말란법도 업습니다.

×

요컨대 어른본위로 한 활동사진관에 어린애기들이다니는것은 시간으로나 영화그자체로나 다 찬성치 못할일입니다. 그러타고 억지로 못하게 하면 몰래몰래 가고 교육영화라고 싱겁디싱거운 활동사진이나 보라면 고만 흥미가 붓지 안코 어떠한 떠방침이 서야 하겟습니다. 즉 어린애기본위로 조흔 활동사진을 맨들것과 또 어린애기 본위로 활동사진관이 잇서야할것등입니다 그러치 안한 한에는 활동사진의 악영향으로부터 어린 애기들을 구할 길이 업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침이 서기전까지는 활동사진을 가리어서 어른이 친히 다리고 가십시요. 그래서 불만한 그사진만을 보이고는 곳 나오십시요.

눈오는거리 ―미국―

엘레베이터·껄
팔인승빽스의 『제칠천국』행
일왕복운전에두번한숨

이 삘딩에 출입하는 여자손님은 미장원(美粧院)에단이는이와 식당에 음식먹으러오는사람과 옷칭회사에단이는 녀자사무원들입니다 미테서 손님을실고 옥상으로 올려가서 내려노코 다시아래로 나려다 놋는것이 조흡입니다

女対人

일러에서 수만흔녀자를대해보면 별별사람이 다 만습니다. 첫재 미용원에오는손님은 대개가기생이나카페여급들이며 혹간가정부인도끼입니다 구식여자는 도모지안옵니다 문을적열면벌서 이여자는 미용원 저여자는식당하고 구별을 지을수잇습니다

머리를 별별모양으로 지저서 올리고 얼굴회장도너무 지독하게 단장을 하고 갑니다.

사람을 깔보고 밉살스러여자는 대개미용원에 오는 여자입니다.

찬바람이 살살하게 부러오도록 시침을떼고 말솜씨도 이래라! 저래라 그저 막노아 말합니다.

아마 그사람들은 지식이 얏고 교양이 적은사람들인 모양입듸다. 아모리 엘레베타를 부리는 저들이라할지라도 가튼여자끼리 그처럼 깔보고 말솜씨가 나즐수가 잇습니까 남의발을 짓밟고도 잘못했다 말한마듸업시 그냥 내려버립니다.

그때는 뒤ㅅ머리를 잡아제치고 따귀라도 쳐주고십습니다. 식당에는 가정부인들도 만히옵니다. 가정부인네는 어데인지 점잔한데가잇고 구수ㅡ한맛이나요 말솜씨도 공손할뿐아니라 구식부인네로 조곰 연세가 든이니는 저를 딸과가치 생각하는모양으로 사랑스럽고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어떠한 부인네는 엘레베타에 드러설때 신을 버서들고 드러오는이도 잇습니다. 여학도리를 두르고 엉덩이를 흔드는녀자는 대단치안케 생각합듸다. 그리고 회사녀사무원들은 날마다 정해노코 그시간이면 맛나게됨으로아조 친해저서 시비가 업습니다.

모다들 조흔사람만 모인것가태요 그러나 여러사람가운데는 자기는 회사사무원이고 우리는 엘레베타걸이라고 무슨 차별을두고 빼기는니도 잇스나 돈때문에 일하는 처지는 똑가지안습니까? 그런사람은 숙이 빤히보입되다 치마자락이라도 기계틈에 끼워서 찌저주고 십허요.

모사편물 세탁법

대야의삼분지일가량되는 미지근한 물에「암모니아수」를 차사시로 한수까리쯤 떠러트려가지고 그물에다가 떠러워진세탁물을 담급니다. 그리고는잠시동안주물럭주물럭해서빨면곳깨끗시됩니다.

그런데 휘날리잇것이되어 좀더깨끗시해야할 경우에는 이제말한 암모니아 탄물에「마르세루」비누를 조금풀러 너허도 조습니다. 그러나흰것이라도 너무때가 무더좀처럼 깨끗해지지안흘 경우에는 먼저처럼 주물러빠는 외에 또한번 표백하면 절저하게 깨끗이될수잇습니다

이방법은「하이드로썰파이트」란약을 차사시로 두엇 떠서 대야에 곳득찬 미지근한물에녹입니다 거기에다가 도 차사시로 삼분지일 조곰너흘것가하는 조산(曹酸)을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빨래를너코 삶으면됩니다

이외에도 두어가지 떼말슴드리자면 대야에다가 삼분지일가량되게 더운물을붓고 과붕산소ー다(過硼酸曹達)를차사시로 세가량다서녹입니다 그러고 그가운데에 떼먼저처럼 세탁한 빨래를 다시또넣거 삼십분가량내버려두엇다가 꺼내어 꼭꼭누르드시해서 흠께물은다음 대발가튼데 펴서말립니다모사편물의 세탁법이래야 대개 지금말슴드린 방법외에 별로히 떠잇지안흡니다

솔으로맨든솔으로
오래쓰는법

솔으로맨든 솔은 틀이잘이 떠나고 결제도되나 까따하면갈라저서 못쓰게되는것이 흔하입니다. 그러케잇업도록 하기위해서는 가시솥가튼데 소금물을 붓고 거기에 솔을줄담구거 하로밤을줍니다.

솔로가 소금기운을 죽빠라드렷거든 꺼내어서 말린다음에쓰시십시요 처음이상임은 강한물을 쓰지마시고 차차열에길을 드린뒤에 강한물을쓰시도록 하십시요 그래면 이만한수고로 솔로는 보통때의배이상 오래쓸수잇습니다.

短篇小說
抗進記 (7)
金廷漢 作
鄭玄雄 畵

「집안 형편을 빤히 알면서―에이 소가튼놈! 나이 스물다섯이나 되는 놈이 소견머리가 온 그뿐이람말인가!」

아버지는 련방 헐떡이를 못참고 마루끄테 나안즈며 울퍼붓듯이 몰아세다.……

『취직자리를 구해보라고 그처럼 타일러도 도모지 그럴 념도 안먹고, 그러라고 집안일이나 거덧는냐하면 그것도 하지안코 밤낫 펀둥펀둥 장바저놀면서 남이 붓그러우니깐 괸히 두상이나 차저다니며 ××주의니 뭐니하고 시시덕거리니 그게 어듸 될법인가! 에이 참 더러운 꼴을 다 보겟네. 괸히 두상이 분놈 바다가지고서……이놈아 그래 두상이가 무슨 ××주의를 하드냐? 술이나 처먹고 갈보년들을 베고 누어서 네맘맛다나 홍얼기소리에 눈깔흘리는 그것이 ××주의가? 갑싼 눈깔! 그냥 놀고 처먹을랴니 남부끄러워서 하는 부자집자식들의 그 엉텅난 잠꼬대! 어느놈이 그것을 ××주의라고 하드냐? 참말로 공산주의자가 듯는다면 배를 안고 나잣버질것입세」

바처지는 굵은 목소리에 힘을 너어 해보냅다.

태호는 입을 악담을고 침묵은 지네처럼 말이 업다.

바처지는 소리를 더노피며,

「다시는 인제 두상이에게 가지말어라! 그리고 기어히 ××주의를 하고십거든 우리집에서부터 해보자구. 논는놈은 먹지마라는 그조흔 말을 다르렴데가서만 하지말고, 우리집에서도떠려 해봐. 왜 하필 이쁜놈하고 네동생놈만을 그러케 부려먹으랴고 드니? 너는 왜 그조흔걸 하지안코 병든놈처럼밤낫 장바저놀기만하는나말이다? 그게 소위 네 ××주의냐?아서라 아서, 애햄, 애햄……」

바처지는 쇠기침바람에 말을 끈친다.

그틈을 타서 겨테잇든 어머니가,

「인제 그만해요. 저도 이담부터는 무슨 셈이 들겟지오」

속으로는 겁을 내면서도 슬그머니 비나리친다.

「뭐? 셈이 들어?」하고, 바처지는 마누라에게로 화살을 돌리며,「셈든놈이 저리고 안잣겟소? 그놈이 지금 내하는 소리를 한마듸나 듯고잇는줄로 아오? 천만에! 울팽은 보면 아주 씻은 배추줄기갓지만, 속은 판히 다르다오. 아무리 내가 빌듯이 타일러도 쇠가죽 무릅슨 놈가티 그저 뚱구멍으로만 숨을 쉬여지 못긴 말들이? 좀먹이 들어서 저자신은 꼭 저러케 만들어가면 공연히 그놈의 복에 업는 전문학교를 보내가지고 제ー기……흥새, 제놈 공부시키느라고 죠아저씨네을 차자다니며 가진 눈총을 다 맛습고 애걸구걸한 보람이 뭐란말요? 그래변호사가 됏소? 어쩼든 자식의 말이라면 너무나 닭게 돗거던!」

어머니는 툴툴거리다 대번에 빨쭉 쇠상이 된다.

바처지는 다시 태호에게,

「너도 사람의 자식이거든 좀 생각을 해보아라. 나도 가튼을 몃번이나 되푸리햇다니 사람만 괜히 싱거운사람이 되어라 인제 그만 지첩머리가 난다. 끗내 이러고서야 어떠케 부자의 륜기가 남을것이며 또 한집안에살수가 잇겟니? 차라리 속히말일이지!」

편잔접 자탄접 그는 이러케 한심한 말을 남겨두고는 그만 어데로 핑ー나가버린다.

주머니진 갈후가리 쑥 뽑어가서 끽소리 못하고 지른등하고섯든 태호는 그제야 겨우숨을 크게 내쉬며 입을 빗죽한다―

「아이 꼴아퍼!」

그러나 영애고 무호고 모두 누에 가리기에만 정신을 팔리고 처어다보지도 안흐니깐 새삼스럽게 굴욕을 느낀듯이

「농민이란건 원허 쨍도업시 고집통이 쎈것이니깐!」

하고 혼자서 개걸거린다.

「그래도 태호씨는 아주 수양이 대단하신테요.」

다행히 영애가 한마듸 바다주니깐, 그는 어지간히 상놀뼈면서,

「그럼, 그만걸 못참아 가지고서야 어떠케요? 레ー닌이 말하기를―투사는 모름지기 강철의 신경을 가저야만 된다―고 했는데.」

『왜 취직은 안하세요?』

영애의 말이 끗나기가 바쁘게

『취직? 흥!』―태호는 코방기를 뀌면서,

『먹기위해서 살아야 되나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요?』

『그런게야 우리가 압니까마는』하고 영애는 약간 생속해지며 『취직을 해가지고는 일을 못하나요?』

『뭐 못할건 업지만, 사람이란건 누구나다 편한 생활에 취하기가 쉽고, 헐한 상식에 빠지기가 쉬우니깐요!……그리고 또 적당한 자리가 쉬게 잇서야죠.』

태호는 기다라케 처진 머리카락을 손으로 한번 훌터올리고 담배를 한개 뽑아물며, 제법 주의자쯤거지를 내라고 한다.

그꼴을 본 무호는, 여태것두 질려오든 불똑이가 못참겠는듯이

『안차즈니깐 업지오. 그리고 제맘에드는 자리만을 구하라는게 벌서 무리지오.』

하고 서슴업시 몽쏘아준다.

『어째서 무리냐!』하고, 태호도 불쑥하며『그럼, 아무 직업이라도 상관 업다는말이지!』

『그러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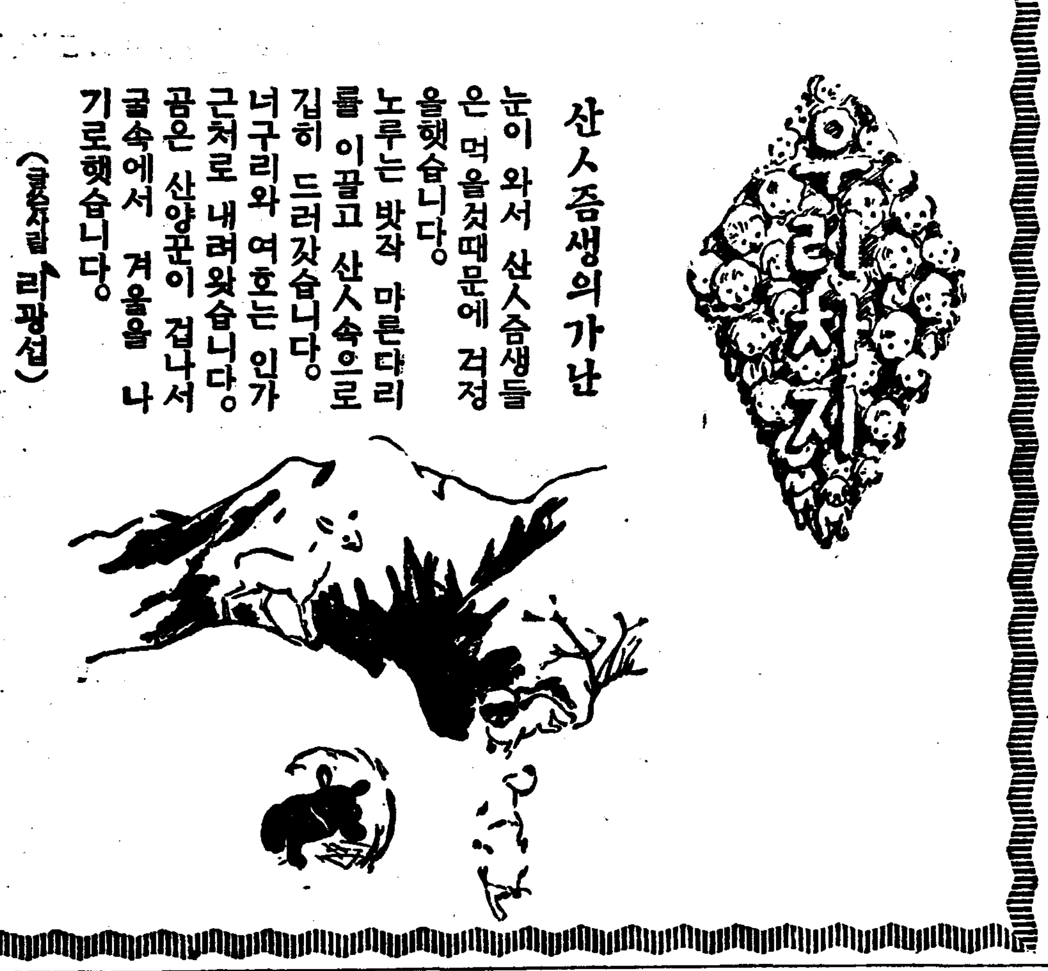
『다시말하면 취직을 위한 취직―즉 자기라는것은 죽여도 조타는 말이겟다……?』

태호는 빗죽빗죽 랭소를 치며, 차곡차곡 파고 든다.

『그건또 그러한지요 속담에, 호랑이 한테 물려가도 제정신만 잇스면 죽지안는다고, 어떠한 일을 하드라도 제마음만단단하고보면 밧듯이 자기를 살릴수가 잇지오 만약자기를 죽인다면 그것은 오로지제 의지가 바약한 탓이지오 방드시 그런치오!』

무호는 알차지게 고집어준다

『그거 어설이란것이다!』하고 태호는 런방 눈에 쌍심지를올린다. 『너는 꼭 아버지를 달머서 고집통이 농민근성을 그대로가저거령 무슨 말이라도 그러로 가서는 꼭 억보소리를 내놋는다말야.』



어린이차지

산ㅅ즘생의가난

눈이 와서 산ㅅ즘생들은 먹을것때문에 걱정을햇습니다. 노루는 밧작 마른다리를 이끌고 산ㅅ속으로 깁히 드러갓습니다. 너구리와 여호는 인가근처로 내려왓습니다. 곰은 산양꾼이 겁나서 굴속에서 겨울을 나기로햇습니다.

(글과그림 리광섭)

함박눈이나리는겨울에
부인병으로하야
남과가튼아해를 못나신분은더한층
쓸쓸하고、고적함을 느끼실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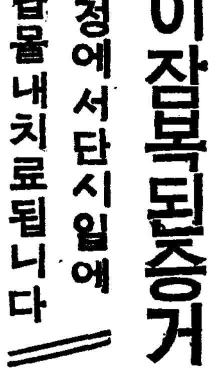
조선으로부터오는 쓸쓸하고찬바람에 소름이끼치는겨울、따뜻한방안에서 등잔불켜노코독서 하기에 호시절인동시에 한편으로이시기에는 여러가지병마에 걸리、또재발하기도쉬우므로 특히주의하지안흐면안됩니다 더욱이여성에게 무서운부인병은지금부터차차성해저서 아름다운육체를버레먹고 부인의미덕과건강을날로해하야임신조차못하게되므로 지금까지평화하던가정에 생각도안튼비극이생기는일도 적지안습니다 그러면이병마가 발생하는시기에대하야일반여성이꼭알어야할명랑한여름、또한완전한건강법、임신을잘하게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대하증이흘으는것은 부인병이잠복된증거
가정에서단시입에 남몰내치료됩니다

원래에부인의체질은 남자와달너서 생리적으로 복잡함으로항상건강하게할나면 특별한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시말하면 남자에게업는월경이나 임신가튼것이특수한생리적작용이고 이기능에고장이생긴것이 원인이되여서 여러가지부인병이생기는 수도만습니다 요새갓치추운겨울에 눈바람이불어오면 무릉현기가난다든가 허리와수족이 어름가치냉하고 아랫배가압흐고 신체가이상해지는동시에 안색도나쁘지고쉬용이줄어질뿐만아니라 얼새어시곤적곤적하고 계란흰자나 누런코물가튼대하증이 흘으는때에는 두말할것 업시부인병에 걸린것입니다 부인에게는 이병처럼무섭고 또돌행한 일은업습니다지금 새삼스럽게말할 필요는업스나 부인은 일가정의 주부로서 가정의 중한책임을 두억개에짐머지고 일가정의 중심이되여살림을 잘하지안흐면 안됨으로주부가 건강하고 안한데는가정살림에대하야 가장영향이크고만흘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의명랑과 여성의미모와 자녀출산가튼것을 생각할때는 더한층건강에주의하고 만일부인병에걸린때라도시급히치료하야 그병근을전멸식히지안흐면안됩니다 세상에서가장말이만흔가정비극의대부분은 남자들이 방탕하는탓이라고말하지만 사실에잇서서는 가정부인측주부에게 부인병이잠복되여서 부부생활이 맘과안되지 안흠으로 자연히가정에취미가업서저서 쓸쓸하고적적해지는결과、화류계에 침범하고、색주가에가서놈게되는것입니다 이러한것은주부가건강치못하고 병으로하야자녀출산도 못하고 부부생활을원만히못하게 되는까닭으로생기는가정비극이니 이러한실례는 세상에얼마던지잇습니다

소일코
오양간곳치기 평소의주의가 제일입니다

그러면부인병은경홀히보거나、경중이라고내버려두어서는안됩니다 원만한가정생활이깨여지기전에 신용잇는약을 잘선택하야복용하고 하로밧비근치해야합니다 부인병에는반듯이 냉증을대하가몹시거든 될수잇는대로몸을편안이하고 성적자극을피하고 부인병양약으로유명한『명지모』를복용하면 혈액순환이잘되어 몸에원기를도돠주므로 전신이뜨위지고 신진대사를왕성히해서 병균을전부죽여버리고 활기를도더주므로 기분이조아지고 얼굴에화색이자차돌고 혈색도조아저서 재차로 여성의본성인 미모와건강을완전히회복하야 암흑에싸엿든가정에 다시금 봄이차저오는것입니다만해지고 얼마안되여서건강한자녀를 나어서 원집안에화희와서광이비츨것입니다



『명지모』는수십년전부터명부에 연구를거듭하고 실지로경험한바에의하야 부인의체질에꼭맛도록 맨드러서 임상적으로도 제법조흔 화한약의원료를써서거서 근래의최신식방법으로 약을맨든것이므로 다른약과가티 부작용의업고 또한의약과가티 일시적효과부르는 원인료병의이라 수만은 병자가이약을내복하고 끈치한분례는너무도만코 전쾌자의감사장효증명이 되오니 여러분가정에파 사진에장만으로도 충분이의 자궁병이나불임증가튼 부인병으로고통하는부인이잇스면 하로밧비명지모를 복용하고전쾌하시기 바랍니다 특히조선의부녀자에게는 부인병지료치료서를한권식무대진정하고 약을선금으로주문하시는분에게는 송료를부담해드리옵니다 (사진은 명지모의약효를 증명해주신 여자의학박사吉原氏)

『명지모』는 각지유명약점에서판매하오며 약가는 六日分一圓、十二日分二圓 二十日分三圓 곤 十五日分五圓이고 특히본포에는 여러분의체질과병세에 꼭맛든가감약이잇스니 본포로주문하고자 하는분은 병세만자세히 적어서 보내시면 병세에꼭맛는 약을배합하야 우편으로보내드립니다

今日이新聞을

보시고 卽時注文하야 五圓以上 東京市京橋區八丁堀三 笹岡藥房으로 보내시는분에게 七大醫學博士가 親切히指示하야 朝鮮말로 알기쉽게 자세히쓴 婦人病自宅治療書와 命之母의 說明書를 누구에게던지 無代進呈하오니 하로밧비 申込하시오

이婦人病自宅治療書는 笹岡藥房에서 朝鮮婦人에게 新年禮物로 普及시키기爲하야 一家庭에 한冊식 無代進呈하는것이니 藥을注文치안는분이라도 申込하기바랍니다

婦人病良藥
●命之母의主治效能

月經不順 白帶下症
子宮出血 赤帶下症
下腹膝痛 手足冷症
頭痛眩氣 子宮痙攣
히스테리 輸卵管炎
卵巢炎 貧血症
臨神經衰弱과產前產後에有效함

―藥價―
六日分 一圓
十二日分 二圓
二十日分 三圓
三五日分 五圓

東京市京橋區八丁堀三
命之母本舖·笹岡藥房
振替東京五〇五〇番
電話京橋二八八七番

學藝

中篇小說에 對하야
—그量과質的槪念에關한試考— ⑤

崔載瑞

나는 어느作家의 現實性을 [illegible] 마다 材料에對한正確한知識을가지 [illegible] 實한다 設使그는材料을가지고 그는自己가 쓰는材料에對하야 忠實한 [illegible] 지안는것이다。 그와同時에 그의藝術이

「事一」 實에 [illegible] 精神과 飛躍을 把握하는 수가 만타。 그의 小說이 無氣力하다는 [illegible] 여기서 나온것이 아닐가? 이번 小說에 잇서서도 作者는 事實描寫에 對한 忠實한 任務를 다하얏다。 [illegible] 에 關한 點에서 正確한 描寫 [illegible] 이다。 그러나 이小說은 그것뿐은 아니다。 그外에 또 그를 넘는 精神의 高揚을 刺戟하는 그무엇이 잇다。 이것亦是 [illegible] 社會的規約 乃至 因襲的規約에서 解放된 精神이 아닌가한다。

五、現實性과現代性

中篇小說은 結局 中間的存在에 지나지못하나 [illegible] 眛지 안흘수업다。 作家들이 어떤 素材를 가지고 이 形式을 利用하며 또 讀者들이 어떤 態度로써 이 形式을 待接하든지 全然今後에 屬한일이다。 그러나 나는 이形式가운데 一種의 新精神이 나타나고 잇슴을 본다。 長篇小說이 大衆小說이라는 呼稱下에 純全히 讀者의 興味만을 考慮하는 商品으로 化하고 短篇小說은 마침 그에 對한 「反一」 動이나 처럼 作者自身의 [illegible] 觀世界에 沈潛하게 되어 [illegible] 小說의 出現은 [illegible] 에 一致에 되지 안흘까한다。 그러면 우리는 中篇小說가운데서 어떠한 것을 調和시킬것이가? 스토ー리의 興味와 性格의 眞實性을 調和시키는것도 重大한

任務이다。 나는 여기서 現實性과 現代性의 調和를 말하고십다。 現實가운데에 現代性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矛盾에 [illegible] 이 업스나 事實이다。 더욱히 現代에 잇서서 그러하다。 現實性이란 過去의 遺物이고 昨日의 延長이다。 現代性이란 未明日을 暗示하고잇다。 現社會生活에 잇서서 現實性이란 多大數의 生活을 支配하고 現代性이란(그잘된 意味에 잇서서) 極少數人의 生活을 支配하고 잇슴은 事實이다。 이것은 保守的精神과 進步的精神과 關係에 比較될것이다。 現實性은 旣成的이고 安定的이니만큼 作家로서 捕捉하기쉽고、또 社會人多大數의 生活實에 符合되니 讀者의 興味를 끄을기도쉬울 것이다。 大衆小說家가 通俗的인 現實性에만 「腐一」 心하는것은 이까닭이다。 그러나 作家가 眞一 現實性에서만 滿足한다면 드디어 그의 藝術은 滯留하고 마는것이다。 그와反對로 現代性만을 追求하는 作家가 자칫하면 浮華한 空虛한 떠내스로가게것도 明白한事實이다。 現實生活에서 遊離하고 그에 對한 一致의 批評을 喪失하게 되면 現代性을 創造할수잇다。 나는 우리의 現代文學에 現代性이 缺乏함을 한탄한다。 材料選擇에 잇서서나 手法에잇서서나 新奇한 實驗的意識을 [illegible] 小說에 잇서서 가장 顯著한 現象이다。 [illegible] 新味를 보여주는 作品도 잇다。 그러나 그들은 現實性이 稀薄하다는 危險을 가지고 잇다。

現實性을 爲主하는 作家가 늘 平凡한 市民生活을 描寫하고 現代生活을 追求하는 作家가 智識人의 思想을 材料삼는 것은 決코 偶然한일이아니다。 生活과 思想이 分離한 現代에 잇서서 이것은 當然한 歸結이라할것이다。 이리하야 長篇小說과 短篇小說 「大一」 衆小說과 純文藝小說 讀者大衆과 藝術的作家와는 漸漸距離가 머러간다。 우리의 努力이 이 兩極端의 接近과 調和를 向하여야 할것은 勿論이다。 그리고 이엇지 任務를 中篇小說에다 期待한다함은 아조 터무니도업는 일일가? (六)

現代歷史哲學의 回顧와 展望 ④

鄭 賢 奎

機械的唯物論에 터한 「만체ー스터」學派의 「토마스·버클」의 文化的方法論에 잇서서는 人類만이 歷史的社會란 疎外된社會 客觀的으로 措定된社會 即 우리의 術語로 自然實在로서의社會로만 把握되엿고 肯定的으로만 把握되엿는 것이다。 이처럼 人類社會를 社會的自然으로 肯定的으로만 把握하는 곳에 이學派와이가튼方法論의 抽象性이 잇다。 이러케 理解된 所謂「歷史科學」이란 現實的社會를 具體的으로 把握할수잇슬 그런 科學이 될수업고 도리어 現實的社會를 抽象性에서 即 現實的으로 存在한 社會 代身에 抽象的으로 存在하는 社會 밧게 把握할수 업섯든것이다。 이런歷史科學에 잇서서는 人間의 모든主體的契機、即 人間의自由意志라든가 理論的意識이라든가 目的意識的活動이라든가

가 對象的行爲이라든가는 簡單히 無視되고 決局 自然生長의 理論을 마련하는것이다。 여기에서는 現實的社會는 自然實在로서만 把握되엿기 때문에、人間의 目的意識的活動、人間의 對象的活動에 依한 疎外의 恢復에서 疎外의 奪還에서 把握치못하엿다。 即 社會를 歷史的實在로서 否定으로 把握치못하엿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아프로를 아가 왜 이가튼 方法 論이 「만체ー스터」學派의 世界觀의 方法論的 基礎가 되는가 이가튼 方法一元論은 어찌하야 獨逸歷史派 「게올그·폰·빌로ー」가 일즉이 批評하고잇는것처럼 自由貿易主義의 學說을 大陸에 傳播시키려는 저 「만체ー스터」學派의 具體的政策의 信條를 宣傳하는方法論이 되는가 이自然生長의 理論은 왜 經濟的으로 自由競爭을

信條로하는 先進社會의 理念의 表現인것인가。

그것은 너머나明白하다。 現代에 疎外된社會는 客觀的으로 措定된社會라보며、그리하야 現在에 優秀한狀態에 處한 그들의社會는 客觀的으로 措定된 그런社會라 보는곳에만、그가튼 疎外된社會에서의恢復이란 잇슬수업는것이며 다시 이런社會의、人間의發生行爲에 依한異質的發展이란 잇슬수업슬것이아닌가。 實際로 이런文化史的方法論에잇서서는 人類社會는 直線的漸次的進步뿐이 잇고 異質的發展이란 업섯다

×

自然主義的歷史觀에 方法論的一元主義의 以上과 가튼 抽象性을 「止揚」 하기爲하야 十九世紀後半의 獨逸歷史哲學者들은 方法論的二元主義를 提唱하엿스니 이것은 어떤 意義를 가지는가 方法論的 一元主義는 獨逸觀念論的 歷史哲學이라든가 하는 文化史的理念論이라든가 하는 方法論의思辨性을 止揚하고 社會의 自然實在를 容認하고 社會를 歷史科學을 發見하엿스나 거기에서 發見하엿든 歷史科學이란 社會의 歷史的實在를

的社會를 自然實在性과는 따로 歷史的實在性에서 把握하려한다 이리하야 方法二元論에서 社會를 다만 自然實在性에서만 理解하려든 抽象性에 反하야 歷史的 實在性에서 理解할수잇섯든것이다。 그런데 問題는 그들이 이와가튼 方法二元論에서 社會를 具體的으로 把握할수잇섯든가。

「딜타이」처럼 生을通하야 「歷史的社會的世界」를 理解하려든 가 「리켈트」처럼「文化이데ー」를 通하야 「歷史的宇宙」를 理解하려든 그가튼企圖는 結局方法二元論과는 對蹠的으로 社會의歷史的實在性만을 理解하고社會의 自然實在性을 理解치못한 畢竟 한개의抽象性에 빠진것이다 아니 차라리 거꾸루 現實的社

會를 把握할수잇섯든 그런科學이 아니엿다。 方法論的一元論은 그런 의미에서 把握할수 잇섯든것이 아니엿다。 方法論的二元論이 方法論的一元主義에서 「非歷史的歷史哲學」이라 하야 歷史의領域에서 모든 法則性을 拒絶하엿다。 「도아스·버클」의 史的方法論에 對하야 批判을加한 獨逸歷史學派「드로이젠」을 비롯하야 「說明」과「理解」라든 方法論的原理에依하야 區別되는 自然科學과 歷史科學을 提唱한 「빈델밴드」「리켈트」라든가 하는學者들은 現實的社會를 自然實在性에서 把握하려든 理를 다만 自然實在性에서만 理

自然 科學과 精神科學을 區別한 「딜타이」라든가

「法則定立」과「個性記述」이라든 原理에 依하야 區別되는 自然科學과 文化科學은 달리하는 理論이 [illegible]

會의 歷史的實在性만을 理解하고 그것의 自然的實在性을 理解하지 안키爲하야 社會에서 抽象的인 自然科學的法則은 勿論 그 歷史的인 歷史的合法則性까지 指否하기 爲하야 生이니 文化이데ー니 하는것을 「措定」 하고 그우에 方法論的二元主義를 要請하엿든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왜 社會의 自然實在性을 拒否하고 歷史에서 抽象的인 自然科學的法則은 勿論 具體的인 歷史的合法則性까지 容認치안엇든가。 그것은 다름아니라 現實社會의 自己疎外的疎外恢復의 過程에對하야 그가튼自然科學的法則은 勿論 歷史의 法則이 다모두 意味의 歷史的法則은 容認하는것은 그네들이 現實的으로 살고잇는社會가 참다운意味의 史的發展을 가저올는지도 모르고 도現實的으로 그것을마련하고잇기때문이다 그러기때문에 實로 方法論的二元主義는 歷史的發展途中에 어떤段階에도 지 生存할수잇슬는지 그런方法論이 아니라 적어도 人類의 社會的生活의 自己疎外의 過程이 「十九世紀後半」에 까지 이르러 史的方法論이엇다。

(讀者는 이方法論的二元主義를 今日까지 執拗히 辯護하다가 今年에別世한 佛蘭西史學理論家 「앙리·세」(Henri Sée)(去二月歿)와 「하인리히·리켈트」(去七月歿)가 잇슴을 잇서서는 안된다。 이것은 方法論的二元主義의 現實的 凋落을 意味하는 것일까!)

科學

感情과消化機能
그밋치는影響과相互關係 ③

金 鳴 善

이런때에 胃液分泌되는 것을 精神的分泌이라고 하는것이다 그런데 사람에게서는 犬이 고양이와 親하게되는것가티 근심거정을하지 안는方法을 배우게되는것은 쉬운일은아니다

사람에게서도 不意에 當한일로서 이렇한 實驗과 觀察을行한 例가잇지 안타 即個人으로서는 不幸을 當하엿섯스나 眞實을 探求하는 學徒에게는 萬金보다 더貴한 조흔材料가되는것이다。 우리家庭에서도 往往히 보는일로써 어린애는 어머니의 知識程度가 問題가아니고 子女에게 對한 注意如何에 左右된다는일이다 말하자면 文明하여 그럿지 우리家庭에서 옛날에는 양재물을 아니가지고서는 살엇는데 요새에는 아니갓지고 더운以上에 생 [illegible] 飮食을 [illegible]

양재물(苛性曹達)이잇는 家庭은 볼수업슬것이다 이것을 내여 쏘는 재물을 좋은房에 노아두거나 하면 어린아이들은 어머니가 사랑푹이나 다서 自己네들 먹으라고 노아둔것으로 생각하고 드려마시게 되는것이 文明이 원수로 이야기거리되기에는 넉넉히 볼수잇는 것이다 이런 不幸을이르키 어린아이의 食道가 狹窄되어버린 다 도돼히게되면 樋筒이생기서 胃瘻를만들어서 營養을 [illegible] 다 이런어린아이에게 맛잇는 飮食을 口腔에넣으면 그飮食은 胃로 나려가지못하여도 胃液이 잘分泌되나 맛업는 飮食을 咀嚼케하면 胃液分泌이 되지못하는것이다 그러나 어린아이에게 맛잇는飮食을 보이는것으로서는 胃液이 分泌되지안는것은 動物實驗에서 보는것과 다른結果를 보이어주는

는것이다 이것은 곳사람은動物보다더 感情이 發達되어 잇는 것을 記載하였다 或은 感情의 支配를더 밧는다는것을 表示함이다 即 어린아이에게 맛잇고 願하는 飮食을 보이기만하면 도리어 焦燥한 感情이생기고 따라서 不快를 느끼게되어서 胃液의 分泌이되지안는것이니 말하자면 精神的制止에 依함것이다 胃液分泌로 唾液分泌과가리 感情에 만흔支配를밧게 되는것을 은 實驗動物에서나 사람에게 觀察한바대로 確實한 事實로 알게되엿다 以上에 말한대로 感情이 消化液 分泌에만 影響이 아니라 消化管의 運動에도 만흔影響을 미친다는것이다 即飮食의 消化에 化學的作用을 分泌하는 消化液의 化學的作用에 消化管을 一定한 物理的作用인 運動으로서 된것이 아니고 一面으로서 는 物理的作用인 運動으로서 胃腸內容物을 밀치어서 消化

液과 混合混濁케하며 蠕動運動에 依하야 內容物은 消化管末端을 向하야 輸送케됨으로 不絶히 腹膜의 新粘膜面과 接觸케하야 吸收를 完全케하는 重要한 役割이잇다。 이消化管을 形成한 筋肉에는 神經이 分布되엿스며 이神經은 腦와 連絡케됨으로써 感情의

支配를바들것이라고 容易히 豫想할것이다。 強한 感情은 의運動을 亢進케하야 甚한 痛을 發케함은 靑年女子들의 자조 經驗하는것이다。 胃腸은 悔來病에 「一」은 의 「一症狀」으로나타나기도 일이고 며누리를 삭전아니 는 종으로부리하는 가혹한家

庭에서 시어머니의흠잡에 며느리들의 가슴아리는 胃의痙攣으로 因함이 적지아니한것이고 戀愛婚姻으로 破戀病에 一副症狀으로도 날수잇는 胃病이다。이것은 거의다 胃運動異常으로되는것이라할수잇다 그러나 憂愁思慮란 大部分은 胃運動을 制止하는것이다。 이事

實은 米國하버ー드大學教授 「캐논」博士가 醫學校在學時代에 처음 알게되엿든것이다 獨逸에 「렌트겐」氏가 ×光線을 發見함에 이光線은 透過하는 物體도잇고 透過치못하는 物體가잇슴을 알게되엿섯다 이 研究에 뜻이기픈 靑年學徒「캐논」氏는 고양이에게 「삐리움」을 먹이고 胃腸의 運動을 肉眼的으로서 ×光線을 비추어 觀察하는 法을 처음으로 알게되엿섯다 이러한 方法으로 胃腸運動研究하든 氏는 어떤날 고양이에게 「삐리움」을 먹이고 ×光線아페서 그 胃腸運動을 볼때에 고양이로서는 상극되는 犬을 面會케하엿섯다。 이때에 고양이 胃腸에 運動은 卒然히 停止되는것을 目睹하엿섯다。 이것이 처음으로 胃腸運動이 感情의 支配를 밧는것을 實驗的으로 우리에게 가르처 준것이다 이런 事實을 動物에서만 觀察한것이아니라 가 에서만 醫學生들에게 實驗하여서 同一한 結果를 어더섯다 即 醫學生들의 學期試驗에 먹는 飮食이 平常時보다 오래동안 胃에 停滯되여잇슴을 보앗섯 다。

1936年度
노ー벨科學賞
受賞者群像 (下)

一 記 者

(2)化學賞

◇「페ー테르·데바이」博士(peter debye) 獨逸伯林大學의 理論物理學教授 特히分子構造論의 優秀한開拓者로서 有名하다。元來和蘭出生으로 「류ー리히」「겟틴」겐」「라입찌히」 等의 諸大學을歷任하고 最近伯林으로 옴마와다 그동안原子와 分子의 物理化學에 貢獻한바가만흐며 研究項目도 四周의比熱式粉末의×線回折×線散亂의 理論等等 이루枚擧할 수가업슬만큼多數의 業績을發表 하엿다。

(3)生理學及醫學賞

◇「헨리·데일」卿(Sir H. dale) 倫敦의 國立醫學研究所所長으로서 生理學藥理에 關한 世界的權威이다 現在는 英國生理學界의 大宗家이며 醫學研究所長 으로서는 널리醫學全般의 研究를 指導하고잇스나 今回의受賞이 반드시 特定한 一業績에對해서 行해진것인지는 疑問이다 그러나 그는 다음에 드는

「뢰ー뷔」博士와 함께 心臟機能의 研究에잇서서 生理學的 또는 藥學的으로 重要한 일을하고잇스니까 或은 그것을 드려서 授賞한지도 모른다。

◇「옷토ー·레ー뷔」博士(Otto Loewi) 「오ー스트리아」의 「그라ー쓰」大學에서 生理學教授로잇다 心臟生理學의 開拓者로서 一學風을 이루고잇다。 그의 特히 大書할만한 일의 하나는 心臟神經의 機能에 關한 새로운 解釋을 한것이다。 心臟의 活動을 促進식히는 作用이잇는 心臟神經의 末梢部를 보고서 心臟機能에 보히는 促進現象及 抑制現象으로부터오는 機構를 說明하려고한것이다 아마 이것으로 因해서 今回의 受賞가 決定된것일것이다。

學生作品
＝硏究論文＝
『하나』에의憧憬 (一)

中 專 鄭 [illegible]

우리는 너머도 쓰린하나의술픔을 가젓다。 오늘도 우리는 짬한눈물의 바다에 헤염치고잇습을안다。 우리는 때때로 울고 때때로 눈물을 거두는 내自身을發見한다。 그러나 울고또울어도 [illegible] 이다할때 우리는 우리의 슬픔을 어떠케 나타내는가 눈물은 다하야 울음에는 지첫스되

아직도 그쓰린슬픔을 잇지못한 눈엽에는 새로운 서름에원 갓슬픔과 싸우며 허덕이는 내自身을 보라。아!이슬픔아!이괴로움!어떠케하면 우리는 이슬픔을 버릴수잇슬것인가。 우리는 이슬픔을 이즐수잇을 것인가。 우리는 이옥고 그슬픔을 이즐길을 차저 헤메이는 우리自身을 發見함에이른다。 眞實로 슬픔의 여내일것을이즐 마지안는 우리

一어떠케하면 우리는 이哀痛을 이즐수잇슬가 그러나 永遠히 이지못할 슬픔임을 알게될때 우리는 새서름을 맛보며 이슬픔 고 보려는 가엽는것을 헤엿시 차저드러간다。 잇는다는일로서라도이 저울가하는 이苦悶스러운 노릇 우리는 여기서 모든 슬픔을 남 김없시 이잇수잇슬것인가? 어 리석다! 잇는다는일의 永久히 잇지못할 무엇을 그自身 감조 이고잇슴을 어이하며 이 이즘 의기쁨을 차저든 우리는 그길의 如意치못함을깨닷게될때 또한번 새슬픔에 겨지않는다면 아니될을 어떠케하랴。

그러나 우리가 이의가리 千百의 서름을 모조리 겪고날때 어떤 不可思議한 境地에 노힘 을 보라。 그러케 아프고 쓰리 든 슬픔이 아무러치도안케 느 꺼지는때가 온다。 슬프다하야 구태여 避하지도 안코 이즈랴 하지도 안코나 그슬픔은 슬픔 으로 대할지 안흐며 依然히 슬 픔과 얼키저싸우나 조끔도 슬 픔으로 맛어지지 안는때가 온 다。

하고많은 슬픔을 모조리 겪 고난 우리는 아프로 어떠한 슬 픔을 當할지라도 그것을 슬픔 으로 알지안흐며 그아픔을 아 픔으로 느끼지 안는 우리가 되고 만다。 슬픔을 뭇해한 슬 픈나의 事實으로만 보아버리며 코 하나의 아픔으로 느끼지 안 는 우리가 되어보는 境地는 바 로 確實한 눈물의 바다이면 서도 「正」과「反」의 여럿(多)되 는 千萬가지 슬픔을 한거번에 가저버린 止揚)새로운고장一그바 다물이 여름이 되매 더위지고 겨울이 되매 티욱 차거워지나 터을고 한것으로 느껴지지안코 며 그쓰리고 아플 슬픔과 재 코 아프지안는 우리가 되어지 직이 부닷치나하나도 슬프지안 는一바라마지안는 그世界、우 리는 여기를 가르처 창된「하 나」의 境地라 부른다。

우리는 우리의 哲學의「하나」 에서 나여「하나에살고하나」

에서 죽음을 안다。「하나」에서 나흔 우리의 哲學은 한때「하 나」에서서 熱心으로하나를의 우고 그손으로 더럽을 차즈므로서 그하나를 힘차게 내어 시련니 妙한 손의 指示를따 라 제북바닷을여편으로 옮마간것을 우리는 記憶한다。그러 나 오늘날에 잇서서는 어떠하 며 또한 어떠하여야 하는가? 우리는 어제도 來日도 아닌 오늘이라는 이바꿔고 옮혀이는 刹那 刹那에 안저서 지난날의 歷歷한 痕跡을 도라보고 오는 날의 新鮮한 새길을 바래보며

우리의 어제를 들어내고 우리 의 來日을 빗내일길을 차저우 리는 오늘의 일감을 마련하기 에 바쁘다。

우리는 果然 哲學이 純粹한 「하나」의 實在를 찻든 發祥의 哲學의길을 잘안다。 그러나 哲學 의 苦行은 컷다。우리는宿命을 굽히지안는 眞實한 求道者一哲 學에게 그所謂一所謂의「하나」를 가벼히 주어지지안흘때 懷疑論 者로 或은 厭世主義者로 或은 樂天家로 어떤 때 獨斷論者로 [illegible] 굴러떠러지든 기나긴 그들의피 무든 荊路를 잘記憶한다。

哀悼! 雲汀
—追悼式擧行에際하야—

李 石 薰

雲汀은 마치 暴風 시름을 피하기라도 하려는드키 몸을 감추고 말엇다。

생각하면 그것이 雲汀과의 最後의 作別이엇다。—雲汀 의 [illegible] 기분이지를 지낸해 봄 [illegible] 나는 雲汀의 同 席도하고 서울비할도 [illegible] 이 [illegible] 上京하여서 [illegible] 病床에서 最後의 [illegible] 을 가지 하는 [illegible] 도 「가망업다」 는 소식은 듯고잇섯스나 그처마연하던터에

안타까운 [illegible] 雲汀은 추락하시는 [illegible] 얏다는 [illegible] 기자 [illegible]

우리는 雲汀 [illegible]

口頭試問 問練習材料 (十二)

—(漢洞公立普通學校)—

金 宗 [illegible]

◇院政トハドンナコトデスカ。

◇天皇ガ御位ヲオ讓リニナツテモ御院中デ政ヲオ聽キナサツタコトデス (白河天皇ノ時ガ院政ノ始マリ)

◇武家ノ起リハ何時頃ノコトデ其ノ原因ハ何カ。

◇藤原氏ノ全盛ノ時其ノ榮華ニオサヘラレタ人ノ中デオ氣ノアル者ガ地方ノ官吏トナルト其ノ土地ニトドマツテ土地ヲ有チ多クノ兵ヲヤシナヒ武家トシテ勢ヲフルフヤウニナリマシタ。コレガソノ起リ原因デス。

◇源賴朝デス。

◇鎌倉ニ幕府ヲ開イタ人ハ。

◇征夷大將軍トハ何ノコトデスカ

◇東北蝦夷ヲ征伐シタ將軍ノコトデス。

◇元寇トハドンナコトデスカ。

◇九十一代後宇多天皇ノ文永十一年元ノ軍ハ高麗ノ軍ヲ合ハセ凡ソ四萬人ガ對馬壹岐ヲオカシテ博多ノ附近ニセマツタコトデス。

◇赤坂城ト千早城ハ誰ガ築イタ城デスカ。

◇楠木正成デス。

◇建武ノ中興トハドンナコトデスカ。

◇新田義貞、楠木正成、名和長年等ノ忠義ニヨリ北條氏ヲ亡ボシタ爲ニ後醍醐天皇ハ船上山ノ行宮カラ京都ニオカヘリニナリ政權ハ一時朝廷ニ歸シタノデ年號ヲ建武ト改メラレタノデ世ニコレヲ建武ノ中興トイヒマス。

◇朝鮮ノ太祖ハドナタデスカ。

◇李成桂トヒマス。

◇織田信長ハドンナ人デスカ。

◇桶狹間ニ今川義元ヲ破ツテ威名ヲアゲ忠義ノ念ノ厚イ人デアツタノデス。

◇李退溪ト李栗谷ハドンナ人デスカ

◇名高イ學者(儒學)デス。

◇豐臣秀吉ハドンナ人デスカ

◇信長ノ臣ヨリ進ミ天下ヲ統一シマシタ。

◇大星忠義ノ志ノアツタ人デアリマシタ。

◇德川家康ハ

◇江戶幕府ヲ開イタ人デス。

◇大日本史ハドンナ書物カ

◇德川光圀ガ四方カラ學者ヲ招イテ作ツタ本デ日本ノ國體ヲ明カニシタ本デス。

◇尊王論者ノ名ヲアゲナサイ

◇高山彥九郞、蒲生君平、林子平吉田松陰、水戶ノ德川齊昭等デアリマス

◇開港論ヲ唱ヘタ人ヲイヒナサイ

◇渡邊華山、高野長英デス

◇新刊 一月號(創刊) 第一特輯 不安中國의[illegible] 第二特輯 [illegible] 政治家 [illegible] 定價四十錢 送料本社負擔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二丁目六一 朝鮮日報社出版部 振替京城五八六七

今春各學校入學規定 ⑧
(但詳細는直接問議하시오)

全州公立女子高等普通學校
◆募集人員 約五十名
◆試驗日字 自三月二十二日至三十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算術

京城女子商業學校
◆募集人員 約百名
◆申請期日 自一月一日至二月五日
◆試驗日字 自三月七日至三月十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算術

槿花女子實業學校
◆募集人員 約五十名
◆申請期日 自一月一日至三月十三日
◆試驗日字 自三月十五日至三月十六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 算術

同德女子高等普通學校
◆募集人員 約百名
◆申請期日 自一月一日至三月十日
◆試驗日字 自三月十一日至三月十三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 算術

永生女子高等普通學校
◆募集人員 約百名
◆申請期日 自一月一日至二月六日
◆試驗日字 自二月九日至二月十一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 算術

梨花女子高等普通學校
◆募集人員 約百名
◆申請期日 自一月一日至二月十日
◆試驗日字 自二月十一日至二月十三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 算術

培花女子高等普通學校
◆募集人員 約百名
◆申請期日 自一月一日至二月十日
◆試驗日字 自二月十一日至二月十三日
◆試驗場所 同校

淑明女子高等普通學校
◆募集人員 約百五十名
◆申請期日 自一月一日至三月二日
◆試驗日字 自三月七日至三月十日
◆試驗科目 國語 算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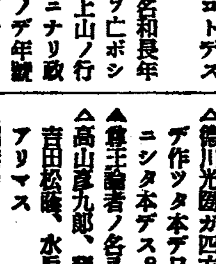
進明女子高等普通學校
◆募集人員 約百名
◆申請期日 自一月一日至三月二日
◆試驗日字 自三月七日至三月十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算術

京城公立職業學校
◆募集人員 約九十名
◆申請期日 自一月一日至二月五日
◆試驗日字 自二月十日至二月二十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算術

朝鮮總督府講習生
◆募集人員 約五十名
◆申請期日 自一月一日至二月一日
◆試驗日字 三月四日
◆試驗場所 地方官吏養成所
◆試驗科目 國語 算術

釜山公立職業學校
◆募集人員 約五十名
◆申請期日 自一月十日至三月二十日
◆試驗日字 自三月二十二日至三月二十五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算術

紙上顧問



【問】 紙上顧問係先生님이 左記를 指示하여주십시요

1、小生은 文學의趣味를無限이 가지고잇사오니 初步에는如何히하여야될니까

2、흙스토이全集과는 店名과 住所와 價格을알려주시요

3、朝鮮文壇과行文가튼 文學的價値잇는冊이잇습니까 大邱 一讀者

【答】 1、文學의 修練으로는별 수업습니다 그저 조흔作品을 만히읽고 또그러케 서보려고 애쓰고하는중에 자연이 늘려 가는것입니다

2、흙스토이全集은 齋本바게 업스니 어느古書店으로 問議해 보시요 古本으로사면 價格은 不一하니다 만약 東京이나大阪等地에 아는분이계시거든그 분에게 부탁을해서사면 싸게 살것입니다。

3、별로 업스나 春園李光洙 氏의 五道踏破記가잇습니다。 (學藝部)

【問】 先生님께質問하옵고자하는 것은 朝鮮映畫界一點을問코저합 나다 先生任朝鮮映畫界에도 外國과가티 其內容이企業的으로組織되여서 俳優에도 月給을주는 곳은 朝鮮에하나도잇습니까 그 리하옵고 大邱에도映畫撮影所가 잇습니까 敬具

【答】 아직은 俳優에게 專屬으 로 給料를 주는데는 업습니 다 大邱에는 撮影所가잇 습니다 (學藝部)

【問】 外國作品을(新聞雜誌의 文 藝記事를包含)번역할때에는 法律上또 慣例上어떠한 制限이잇습니까原 作者又는 版權者와交涉하다면實 例上如何한 節次를 取하는지요 詳細한下敎를請합니다 一讀者

【答】 外國作品을 飜譯하려면原 作者의 承認을바더야합니다。 交涉의 節次라는것은 따로定 해잇지안습니다。 請旨다해 請합다를이겟지요 (學藝部)

【問】 洋行(歐米)을 하는데는 如 何한 手續과 準備이 必要하니 까 仔細히 下敎하심을 要함。 通川邑 朴鐘漢

【答】 警察署 外事課에 旅行券 交附申請을 하십시오。 準備는 英 語나 獨、佛語의 語學적만한 準 備면됩니다。 (學藝部)

000877

英國映畫界의 巨頭들이 한자리에 모이엿다 現在英國映畫界는 이들의 머리로 움지이는것이다 左側으로부터 알렉산다·코르다、 뻬·크레르 잘스·로ー톤, 로버ー트·싸ー우드等이다

映畫批評

새로운땅

이映畫는 山田映畫의 批界的權威아놀드·팡크博士가 日本의自然을 어떠케 取扱하엿나 하는데 興味의 焦點이잇섯다

製作時日이 一個年 그費用이 七十五萬圓이라는데 그規模가큰것을 알수잇거니와 셋트보다도 거이全部가 로케이숀으로 되엿스며 監督으로서의 手法에도 노피評價하고 시펏다 꽉가른場面을 드려내는데도 普通다른 映畫를 볼때——鑑賞者로서도 이場面은 이러케되너니라하는 豫想과 그다지 틀리지안흔것이通例엿는데 이映畫는 全然다르다 例를들면 처음場面으로富士山을드려내는데 웬만하면 그山의遠寫에서시작할것이나 팡크는 山은보이지안코 바다와 나루배로부터시작하야 나종에山全部를 드려내엿다 高山地帶의撮影은 繪畫다운맛이잇섯다

이映畫에서는 스토리ー가 全然問題될수업는것이 定則이다 팡크의 처음意圖도 스토리ー를 念頭에 두엇이 안이요自然을念頭에 둔만큼 이야기는 無理투성이요 볼것이업스나 팸도이映畫를 이야기보담 技術에 置重하여야할것이다

主役小杉의 演技에는 그다지 새로운것을 發見치못하얏고 차라리 早川雪洲의 老練에 눈이 끌리엿다 原節子의 演技가 第一눈에띄엿다 이映畫가 世界的注目을 集中시킨 同時에 西洋人으로서 東洋의自然을 取扱한問題의 作이라는데 好奇心이 끌리거니와 그러치안라하더라도 技術만을말하는자리라면 팡크의 大作 모두랑외王者에 比하야도 조고만한遜色이업다고보인다 (市內若草劇場에서上映中)

隊長부ー리바

近來에 와서 映畫의原作이더욱 重要視되고잇는 傾向이잇스나 이映畫를 보고서 비로소그것의 참된 重要性을 再認識하게되엿다

이映畫는 文豪고ー고리의原作인만콤 이야기의 進行에조고만한 無理도업슬뿐안이라 코사크의生活과 族性에對하야 차라리親切한 試問을 보여주어 文學的으로 보아 定評잇는 大作이映畫化되엿슬때는 팬으로서 아모런 한되켐을 가지지 안코 白紙로對한다 하더라도 이야기속에 그만自身이끌려 드려가거니와이映畫를 批評해보겟다는 前提를 가지고 對하더라도이러한것을 늣끼지안흘수업게되는것이다 監督알렉시스·그라노프스키ー의手法은 原作의힘게 놀리여서 그다지빗나지 「」 음되엿다 보다또 脚色에잇서서 에필부노아의 努力을여기서 크게評價하고시펏다 場面과場面의無理업는進展—그리고 緊張은 처음場面에서부터 끗까지 풀리지안헛다

다라스·부ー리바로 扮裝한 아리·보ー르의 演技는 이 映畫의 脚色과 監督에 지지안케노피 評價하야도 조흘것이다 굵은線과標準한 코사크의性格을 아마 이사람이 아니엿드면 나타내지못하엿스리라는 생각까지주게하엿다

마리나로 扮裝한 다니엘·따류ー는 이映畫에서 自己의技術을 잇는대로 發揮할 機會가 업섯다 이것은 그의 配役으로보아 하는수업섯다

우리가 對할機會를 가지지못하엿든 새로운 知識ー코사크의 生活을 그렷다는것은 그만두드라도 이映畫는 問題업시 今年初有의大作이라고 보아서 조금도 異議가업슬것이다 (市內明治座에서上映中)

사진(上)은새로운땅 (下)는隊長부ー리바

銀幕夜話

深刻한戀愛

바ー바라스탄위크와 로버ー트테ー라의사이는 날이갈사록 기퍼갈따름이다 한週日에 한번式 풀레셀트交換이잇고 散步도 꼭한車에 타고 다니는데 자난조와하는 친구들이 「정말結婚을 할레냐?」고 무르면 스탄위크는「來月에 英國으로 新婚旅行을하게되면 놀나지마러요」하고 天然스럽게 對答하얏다 心臟도굿거니와 戀愛도深刻하다

따그라스의新案 寡默主義宣傳法

【終林同盟】 따그라스페어방스氏는 最近에終林의自己스타디오에서 [illegible] 映畫化에着手하고잇다 그런데 이映畫의主役의相對役을 할女優가 누구인지 알수가업서서 궁금해하면서 오직그 이름만을 發表하얏는데 이女優는 終林에서아직드려보지못하던 이름으로 「씨그레트·가리ー」嬢이란 無名新進이엿다 終林의前例로보아 新人을抜擢할때는 大端히장한宣傳을하는것이 通例이니와 今番의 따그라스氏의態度는 스타디오는勿論 記者들에까지도 宣傳이업고 도리어絶對秘密을嚴守하고잇다 가리ー嬢에對하야 目下떠도라다니는風聞을드르면 그女子는 「놀웨이產으로二十一歲 灰色眸子로長身의新進」이란것밧게는 알道理가업다 이러한秘默主義가 도리어 팬의心理를刺戟하야 그女子의데뷔ー를 刮目期待하고잇다

「最善의宣傳方法은 宣傳하지안는것이다」 이러한새方法이 終林의 새로운傾向으로될지 도모른다

라디오

二日(火曜)

◇午後六時 童話 이상한뽕나무 高在天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經濟解說
◇同七時三〇分 講演 예수의山上教訓 盧基南
◇同八時 物價騰貴와生活費 李常薰
◇同八時 關山戎馬外 一、關山戎馬 二、楚漢歌 三、寧邊歌 四、山念佛 五、개성난봉가 六、변조난봉가 金蘭香 金桂紅
◇同八時三〇分 歌曲 一、界面 ... 箏 金相淳 大笒 金永根 鼓 金一宇
◇同九時 野談 實戀一體 度秋岡

第一放送

◇午後六時 (城)東西과아코데온
◇同六時二五分 (東)青年時間
◇同六時三〇分 (東)講演
◇同七時三〇分 (東)新日本音樂
◇同八時二五分 (大)義太夫
◇同九時 (東)講談

三日(水曜)

◇午後零時五分 (東)吹奏樂 陸軍戶山學校軍樂隊 指揮樂長 岡田國一
◇同一時一五分 副業講座(八) 管理法(秋冬) 成周復
◇同三時一〇分 (東)教師時間 (第一放送에依함)
◇同六時 印刷이야기 金鎭浩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國語復習
◇同七時三〇分 婦人講座 鮮支에關하야 前川 [illegible]
◇同八時 (中)베베이곳 宋今璇 李槇雨 崔基鳳 郭基鳳 金宗實 外二人
◇同九時 四節歌外 一、四節歌 二、[illegible] 三、小春香歌 四、花打令 吳載會 金德桃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 (東)吹奏樂
◇同六時 (大)이야기
◇同六時二五分 (東)副業講座
◇同七時三〇分 (大)講演
◇同八時 (東)小唄
◇同八時二〇分 (大)東西[illegible]
◇同八時五五分 (東)物語 籌式實況

四日(木曜)

◇午後〇時五分 (大)오페렛타 떼파ー트의時計 杉岡三郎作 近藤十九二編曲 부랑켓·포作、코루네비ー의編에依한ー
配役ー 에리子(떼파ー트걸)井上起久子 美紗子(同) 澤文子 山村光二(映畫俳優)古城潤一郎 淺利健造(紳士)若井平太 城富右衛門(店內監督)多田俊平 合唱 關西오페라소사이어티 解說 山本紫郞 音樂指揮 近藤十九二
◇同一時一五分 趣味講演 立春이야기 金道泰
◇同六時 管絃樂 一、보헤미아의少女…앗샤ー編曲 二、「카르멘」 로마…라이드編曲 三、「라·팔로마」 四、빗노레이 … 리뻘트 作曲 五、歌劇 … 作曲 DK管絃團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算術復習 安興奎
◇同七時三〇分 文藝講演 創作의態度(一) 李光洙
◇同八時 野談 香姫는新婦 申鼎言
◇同八時三〇分 (東)獨唱 太田綾子
◇同八時五五分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春香傳中 獄中相逢歌 李東伯 鼓手 韓成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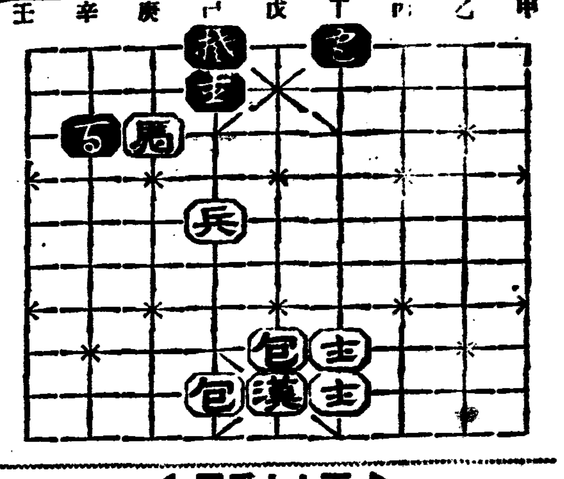
第一放送

◇午〇時五分 (大)오페렛타
◇同六時 (東)歌物語
◇同六時二五分 (城)修養講話
◇同七時三〇分 (東)講演
◇同八時 (城)俚謠
◇同八時二五分 (釜)[illegible]
◇同八時三〇分 (東)獨唱
◇同八時五五分 (東)浪花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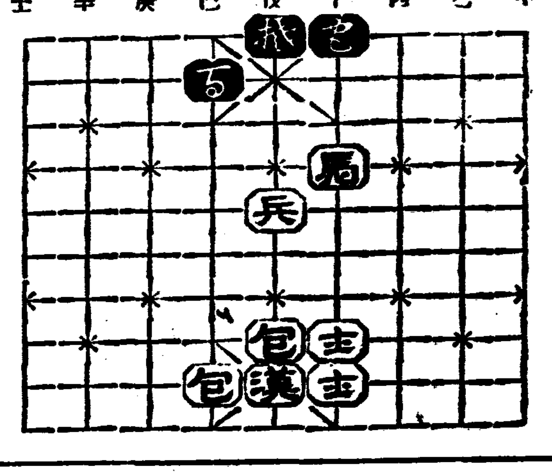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十七)

漢 李在鳳 楚先手 金復起

◀百六十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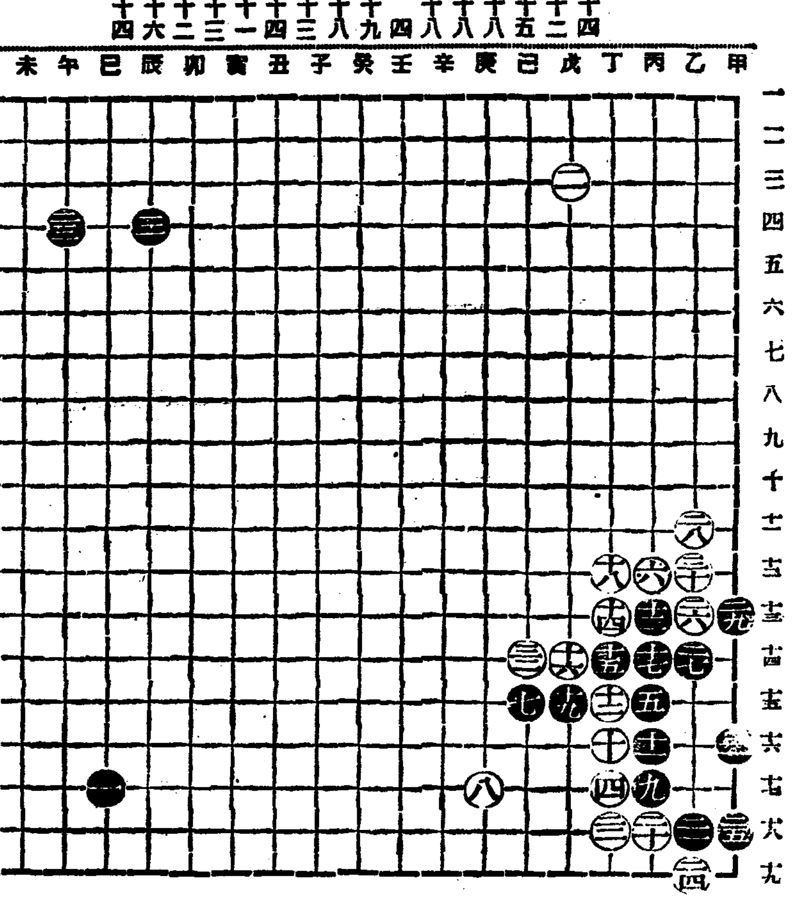
◀百七十手圖▶



己二ー戊一 [illegible]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ー2ー

白 蔡極文 黑先 丁奎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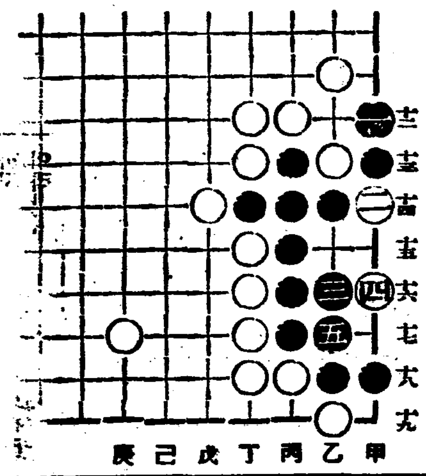


丙의十四 丁의十二 戊의十五 丙의十八 乙의十八 丁의十八 午의四 乙의十九 甲의十八 乙의十三 乙의十四 乙의十一 甲의十三 乙의十二 甲의十六 己의十四

觀戰者談

黑一九(戊一五)은 白二二에 先手하면 白戊一八黑二〇으로 制敗가 黑一九에 不下하얏다는對局談에贊同이다 黑二三(午四)은 當局保勢에 適切無二의 好着이나 一九로此着代行하얏스면 爭先取勢에 緩急得宜의感이有하다 黑二九(甲一三)은 黑三一에 完生이何如 白三〇을 甲의一二로 直拒成功의時에난 黑이 攻勢의餘裕를 豫料함이나 若 黑이 甲一四에 勒奪時난 白은 乙六에 深攻의機가有하니라

(參考圖)



崔承喜 渡歐告別舞踊會

二月二十、二十一兩日間(밤七時) 府民館大講堂에서

會費 二·〇〇·一·五〇·一·〇〇

主催 崔承喜舞踊研究所

後援 朝鮮日報社

冬の蝦蟆とホルモン=

男生○器를 健全發育을식히면은 元氣旺盛하게되고 腦力記憶力도增進한다

치워 지면은 개고리와가튼 冬眠動物은 땅속에 파뭇처잇서 春暖이될때까지 거진半年동안며 지도안코 마시지도안코며서도살수가잇는것은肝臟에잘가치해두엇든호루몬을조금식少出식혀內分泌를하는때문이니 더욱이人間男子의生殖腺호루몬은 血液을通하야腦를기르고

活潑 한元氣才力의 根源을 만드는故로 氣力이不足한靑年이래도弱少한生殖器를 健全하게發育을식히면 人生의幸福을차지할수잇는以上으로腦力、記憶力을增進식히고日常氣分도快活하게된다

水治器를自己가 祕密히便하게 一日一回、一回十分間을 使用하야 物理療法을 行하면 理學的巧妙를 極히한本器는 直時眞空吸引力을 내서 貧血 萎縮한生殖器에도 暫間사이에 新鮮한血液을 流集식히고 組織을 擴張케하야 發育力을 促하며 그効果가 메ー도루에나타나는同時에 理學的ホンツンデユン作用을 發生식혀

衰弱 한性神經을 活潑하게하고 不自然行爲의害、遺精、夢精、早漏、陰萎를回復케하야 [illegible]

그러케함에는 生殖器에直接具體的으로

物理 療法을 行하는것이가장進步햇다고할수잇는新療法이다

曲된것을 整形으로만들고 弱小한것을健全發育케하는効果가잇다 따라서 生殖腺호루몬의內分泌도旺盛해지며 腦神經衰弱氣分은씨슨듯이 사라지고頭腦가明快하야奮發力도더생겨 回復者들에게서

滿悅 하는 好評은 날을거듭할事 高調되고잇스며 約少한 費用으로 簡易、完全하게할수잇슴으로……

性器健全發育 物理療器의發明

世界的優秀品으로 海外에까지有名한 ホリツグ眞空

一千九百三十七年을當하야 劃期的甦生을하고저 一次實驗하고 男子의 資格을 훌륭하게完成하며 前途洋洋한幸福과 成功의 運命을開拓하기로 努力을하라

醫學博士五十餘氏 實驗證明推奬

登錄商標

◇ホリツク眞空水治器 金五圓 送料 內地二五錢 植民地五五錢

◇ホリツク包莖安全器 包莖~짜르지안코 秘密히成形할수잇다 自己가 金四圓 送料 內地一五錢 植民地四二錢

‖說明書添付‖ 匿名으로密送

效果不完全한 模造品잇스니꼭ホリツク眞空水治器를請求하시오

◎代金引換小包는 各送料十五錢增

◎無料進呈 非賣品 圖入說明書 葉書로申込하면全部無料로匿名密送한다

東京市芝區神谷町十八 新療法研究所 東京 振替 [illegible]二二一

世界傑作童話集

發賣中

定價一圓 送料六錢

出版部責任刊行

아버지、어머니、아들、딸、누구나 보아야 할 조흔 책이다。유치원보모、소학교교원은무론 아동문화의 학도는 꼭 보아야할 책이다。집집이 이책업는것을 부끄러워하라。

家家戶戶한卷씩

發行所 朝鮮日報社出版部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振替京城五八七六番

◇三百頁의內容만흔책◇
◇아름답기짝이업는책◇
◇누구나읽을純한글책◇
◇이야기마다揷畫든책◇

內容目次

日本篇 一、허리굽은새 二、「배안에든」 「바안베」
中國篇 一、어부와흉귀신 二、바보국수장사
米國篇 一、호도까는 난쟁이 二、고래와코끼리
佛蘭西篇 一、구두신은괭이 二、「별」느와 도깨비
西班牙篇 一、조고마한새 二、귀신이야기
英國篇 一、물새시 二、부대안의외고기
愛蘭篇 一、신선나라구경 二、伯爵夫人과 물새장사
土耳其篇 一、보배거울 二、술들의새
露西亞篇 一、개와啄木鳥 二、兄弟
亞弗利加篇 一、아흡재人形 二、날아다니는木馬
獨逸篇 一、두더쥐 二、의인바사
和蘭篇 一、조고만유리구두
丁抹篇 一、삼백예순여섯 어린애를가진 여자 二、큰돌쇠와작은돌쇠
一、일곱놈외새옷
朝鮮篇 一、콩쥐와팥쥐 二、흥부와놀부
印度篇 一、「마리나라」와 파랑새 二、애기원숭이들 以上

이內容이 全部다 한卷에 들어잇습니다。

平和로운新春의선물로

각국童話에 정통한 조선문단의 쉽고 [illegible] 명가를 망라하야 [illegible] 세계걸작동화를 [illegible] 을 세계각국가정의 자녀들을위해서 어느가정에서나 읽어야할것입니다. 더구나 새해의 행복을 비는 어린이를 위한 조흔 선물로 이 동화집은 가장 적당한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이 얼마나 조흔 것인지는 여류시인 毛允淑씨의 평을 보아도 아실것입니다 그리고 매편마다 아름다운 삽화를 안석영 화백이 그리어 매우 어엽브게되엿습니다

毛允淑女史評

우리에겐 과거에적지안흔 동화서적이잇섯다。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발전되여가는 어린이들의 지식정도를 만족시킬수업섯든것이다。지금이世界동화집 한권을읽고나매 童話世界에 趣味를 두는이들에게 큰福音하나를 알려드리고 시픈충동을 밧게된다。이책은 한나라의 습관이나 전통사이에서 맨도려진 冊이아니라 世界各國 가장 진기한습관과 풍토를 무대삼고 독특한 그나라諧謔에능한이들이 번역소개한것이다。그럼으로 東洋的 분위기에 취햇든 머리를 멀리 구라파나 英國의 風土회경에 가저갈수잇는 旅行的 特色을보여주는 冊이라할수잇다。동화내용에잇서서는 全部가善의勝利를主張삼어 꿈여진이야기들인데 동양은동양적습성에서 서양은 서양적공로를 타고매저진깨끗한 이야기들이다。특히 이동화집은 그內容에잇서 在來에것보다 文化的신선味를 加해잇고 歎善을가진 貴高한맛을 알게한다。이야기들이 속되데 끗치지 안코 한번읽으매 어린이들에게 장치의 지능이 거나슬플올체 공하기보다무엇이나 한참생각할 여유와 힘을 주고잇다。그럼으로 아조적은 어린아이들은 리해키 困難한 줄거리도잇슬듯하나 조금굴을아는어린이는 누구나보아 그진품에하로밤을 새울만한이야기冊이라 보아진다

執筆하신諸先生

張赫宙先生 李殷相先生 朱耀燮先生 徐恩淑先生 李軒求先生 柳致眞先生 白石先生 金珖燮先生 朴龍喆先生 蔡萬植先生 [illegible]喜淳先生 金晉燮先生 李甲燮先生 田榮澤先生 安碩柱先生 咸大勳先生

이아름다운童話集을보내십시오

檢査合格 米穀再査로 穀物業者不平頗高

檢査官의"檢査濟"를所長이各今되짜해서

米穀檢査安東出張所駁擧

【安東】경북안동은 봉화(奉化) 영주(榮州) 청송(靑松) 영양(英陽) 등오개군의 중앙에잇서서 농산물집산의 중심도시가되여잇스므로 미곡검사수량이 해마다늘어 갈뿐 아니라 곡물 무역가 점점 활기를 띠여오든바 소화십년시월에 미곡검사소 부산지소 안동출장소(米穀檢査所釜山支所安東出張所)로 강본(岡本) 소장과 하전(下田)검사가 부임한뒤로부터는 검사방법이 너무까다럽고 운가합성을 부리므로 당지의 곡물무역계는 말할수업는 고통을 느끼여 불평이 만만하든바 더구나 작년십이월이래로는 정조(正租)검사를 강제로 실시하야 농촌에대한 막대한피해를 줄뿐아니라 재래에 안동으로 드러오든 정조가 다른곳으로 새여나가버림으로 곡물집산지로 일홈이 놉흔 안동에드러오든 곡물이 적어저서 전에못보든적막을 느끼게되엿스나 안동곡물상조합(安東穀物商組合)에서는 검사소에서 하라는대로 가마니와 색기며 인부임과 검사수수료등을 희생하여가면서 먼저벼로검사를 밧고도 다시 쌀로 검사를 밧는등 언제나 이중검사에 시달려오든지라 검사당국으로서도 이러케 고경에잇는 상인에게 동정은못하여줄지라도 그이상으로 무리한 고통을 주지는안허야할터인바 자가네가 가지고잇든결대의 권한인검사규칙을 가지고 곡물상을 위협하는 정도는 점점가혹하여가게 되엿다。지난일월십삼일에 시내삼성정미소(三成精米所)에서 대두(大豆)일백구십세가마니를 검사할때 하전검사관에게 검사를바덧든바 십팔일에와서 강본출장소장으로부터 그중육십세가마니를 사등으로부터 불합격으로 등급변경을하여버렷고 또 이십오일에 백미칠백오십가마니를 봉화、춘양방면으로 반출하기위하야 역시하전검사관으로부터 전부를합격으로 검사를바덧든바 이십칠일에 전기하전검사가 찍어노흔 불합격표를 지우고 봉쇄지(封鎖紙)의미를 떼여바리엇다하야 당지의미곡상과 정미업자사이에는 불평불만이 극도로 터저나와 이방약무인한 검사당국의 태도에대하야 어데까지 문제하기로하엿다한다 원래강본씨는 소장이고 하전씨는 그차석으로잇다고하더라도 두사람이 다총독부검사관임에는 틀림이업는데불구하고 검사수수료를 완전히밧치고 총독부검사관의 검사를완전히맛치엇다고 이러저러니하는 리유로 또다시 등급을낫추든지 검사를취소하는일은 종종잇다하면 이면검사를밋고는 안심하고장사를할수업다하야 원체 검사기간이 경과하엿거나 해외로이출하는 경우에는 부산(釜山)、대구(大邱)의감독관이 재검사를하야 등급변경을 마음대로 할수잇스나 다가튼 검사관으로 검사한지멧칠이못되며 등급을 합부로 변경하는것은 절대로 용서못할불법행위라고하야 일반의 여론이 분분하다고한다。

安東穀物商奮起

緊急會議열고 對策을協議後 監督當局에陳情?

【安東】별항보도와가튼 검사당국의 불통일문제에대하야 안동곡물상조합에서는 이십팔일오전열한시부터 긴급총회를 시내삼성정미소에서 열고 조합원이모히여 원만트의 한결과 「이러한 불통일된검사소를밋고는외처의상인과안심하고 매매조차할수업는 형편일뿐아니라 검사가완전히다되여잇는것도 언제 또다시등급변경이나 검사취소가 되여버릴는지 알수업고 검사수수료도거듭 거듭물어가지안흐면 안될형편이니 이현상대로는 하루도 참을수업다하야 대구검사감독당국과 부산지소에대하야 『이러케불통일된검사관에게는 검사를바들수업다』고 진정서를 제출하는동시에 변우영(邊羽泳)외전등송(藤田藤松)리의도(李義道)양씨를 대표자로 선정하야 이십구일오전열한시에 강본검사관을 차자보고 강경한의견을 표시하엿다고한다

"再檢査하는건 確實不法行爲"

憤慨하는 下田檢査官談

【安東】별항문제에대하야 기자는시내서전려관(西田旅館)으로 하전검사관을 차즈니 씨는다음과가티말한다 「물론불법행위입니다 자기가소장이니 책임자이니 하지마는 총독부검사관으로서의 책임은 조끔도다를것 업습니다。나도 규정에의하야 검사를한것인데 나에게는 아무말도업시 마음대로 등급변경이나 검사취소를할권리가 어데 잇습니까?—내가 한 검사는 위신이 전연히 업게되여 바렷스니 당업자가 불안심 일것은 틀림업습니다。상부에서 곡물상조합의 진정에 대하야 어떠케할는지는 모르나 하여간 나의검사수준은 강본씨이상으로 목하게할 작정입니다 당업자가 더 고통을 밧게될는지 모르나 할수업는 일이지요 …제는 이미 조합과 검사…이에 진행중에잇스니 …직 내할일만하면될입니다 …간 날후에 처음당하는 …업는 모욕을 바… 사지소에서도 사…스나 이러케 불법한일은 도모지 못하엿습니다。

"當業者損害는 裁判해바드라"

岡本所長談

나는 책임자로서의 직권으로 한일입니다 이러한실례는 언다른곳에도 종종잇습니다 제어데서잇느냐고요? 그것은 잘기억지못합니다 그러나 당업자가 밧는손해는 재판하기전에는 누가책임질는지 물음니다 다른검사관의 검사에대하여도 소장이 책임을진다면 왜 그런무책임한 검사를 시키며 그런권위업는 검사관의 도장으로 검사를하느냐고요? 네—네—하여간바뻐서 오늘은 실례하겟습니다

"이런所長밋고는 安心할수업소"

三成精米所 邊羽泳氏談

…제는 참을수 업습니다 현가마니에 너허도 관계업다는 규정에도 잇는 반출소비(搬出消費)을 우리는새가마니에 너헛슴에도 불구하고 「가마니를질이 납부다」고 손해를 보든지 말든지 검사취소를 해버리니이런몰상식한 소장을 상대로어떠케 안심하고 장사를 하겟습니까? 이것은 벌서게인문제가아닌즉 검사불통일을리유로어데까지 진정을 하려고한니다」

律動體操講習

楊口敎育會主催

【楊口】강원도양구에잇는 양구교육회에서는 지난이십일일부터 양구읍공회당내에서 율동유희와 라디오체조 강습회를 개최한바 강사는 청봉교 중촌교장(中村校長)이며 참가자는 군내각학교교원 이십여명으로 동삼십일오후네시에 무사히폐회하엿다한다

마음은潔白 몸은"거지"나

—十七圓拾得屆出—

【元山】도한푼줍쇼! 밥한술줍쇼하며 가가호호로 돌아단기는 어린거지가 십칠원이라는 생전처음보든돈을 어더가지고 경찰서에 계출한 보기드문 미담이 잇다—그는 일정한 주소가업시가두를 방황하는 송경관(宋景觀)(一三)이라는 거지로서원산중정상정목 대판매일신문 판매소아플지나다가 길가에 떠러진 새지전 십원짜리 한장과 일원짜리 일곱장을 주어서 입어버린임자를 차저주시사하고 지난 일일 원산서 보안계를 차저와 주은돈을 내노앗다 이러케 물진밥에주린 거지로서 그와가티 돈을 손에서 손을 안대는 그에게는 모도들 탄복하지안는다고한다。

北新地에火災

損害額二千餘圓

【會寧】회령읍북신지(北新地)에잇는 취월루(翠月樓)에서는 지난삼십일새벽다섯시경에 불이이러나 이층두채를태우고 소방조의 힘으로 동사시경에 겨우진화하엿는데 발화원인은 집을수리한돈등 그전날에온 돌을 개조하고 불을만히때엿든게라고하며 손해는 약이천여원에 달하리라고한다

監督排斥外에 待遇改善要求?

長項製鍊所職工怠業續報

【長項】작일속보로 장항제련소(長項製鍊所)직공들이 지난이십일일밤에 회사에요구서를 제출하고 태업을 하는중이라함은 기보한바어니와 쌍방이 모다가 일보도내지안으므로 외부와의 련락을 절대끈코 사건내용을 절대비밀에 부치고 잇스므로 자세한 것을알수업스나 탐문한바에의하면 모감독배척과 대우개선이라는데 쌍방의태도가 모다 강경하다 태업에 가한전기정련부직공은 약삼십명가량으로 회사측에서는 방금출장중인 소장에게전보를칠것이므로 소장도 금거히 귀소할줄로하다한다 그리고전기제련소는 백여명종업원을 가진큰공장이라 장차문제가 어떠

雄基邑上水道

二月一日부터給水

【淸津】작년부터 공사중이든 웅기읍상수도(雄基邑上水道)는 드되어 이월일일부터 급수(給水)하게되엿다 이로서 다년간 삼만읍민의 요구하든 수도가실현을보게되엿다한다

國境地方에酷寒 零下四十三度!

十二年來의初記錄

【咸興】함남산지대에 희유의혹한—국경혜산(惠山)지방은 지난이십사일부터 기온이급히내려서 령하삼십칠도까지 내려가드니 그후에도 치위는 풀니지안코등이를 태왕하야 혹한을계속하고잇섯다 상류오지대지방은 더욱치위서 한란계(寒暖計)의수은주가 모다어러서 정확한기온을알수업스나 령하사십삼도이상으로 추측되여 실로 소화원년이래십이만에 처음의혹한이라고 지방주민들도 놀라마지안는다

李孝子表彰式

【天安】천안읍 내리에 거주하는 리덕용(李德用)(六○)씨는 본래 경성사람으로 수십년전부터 천안에 전거하는중인바 희세의 효자라는 칭송을 듯고 잇다。그는 일즉이 그부친을 사별하고 어머니한분을 모시고 지내든바 가사의형편에의하야 부득이 천안으로반이하야잇든바 변변치못한 영업이지만 시가지에는 영업장소를 두고 그영업소에서 십정가되는 한적한 지대에 칠십로령에잇는 자기모친을 게시도록하여노코 주야로 장사에열심하면서바람이부나 비가오나 혼정신성을 꼭꼭하며 입에맛게 봉양을성심으로할뿐아니라 제일 그모친의 똥을 잘못순하며 모친이 혹노여워서 종아리를 칠때에는 마진후에 자기처소에와서 슬피운다 그런데그는아퍼서우는것이라느냐하면 그런게아니라 암만마저도 로령에게신 모친의 기력이쇠로되여 압흐지아니함으로운것이라한다 이외가티가륵한 효자의 동정을 이웃에서 한사람두사람이 아러서 자연 천안 부근에서 다알게되엿슴으로 천안읍 유내리 진흥회장 양명환(梁明煥)씨와 구장방한용(方漢庸)씨와 유지 정재호(鄭在鎬)씨등의 발기로 지난 이십일에 리덕용씨의 효자포창식(孝子褒賞式)을 그모친게신 자택에서 래빈배여명의 열석하에 승대히 거행하엿스며 근일에또 천안읍장으로부터 군수에게 보고하기로되엿다하며 일반은모범할효자라고 칭송이자자하다한다

虛僞證券行使事件 一回公判開廷

海州法院에서連三日에亘해 被告들大槪犯行是認

【海州】운송회사(運送會社)와정미업자등이 결탁하고 터문이도업는 창하증권(倉荷證券)을 발행하야 은행기타금융기관으로부터 사십만원 부정대출을 바더 소비하야 일시서조선재계에 큰파문을 이르킨 대규모의 유가증권허위기입행사사기(有價證券虛僞記入行使詐欺)사건의 관계피고

海州邑中町 海州運送會社專務 久保孜良(四四)
海州邑北旭町三五 海州運輸會社出荷係主任 崔燾寬(三四)
海州邑南旭町一一一 精米業 崔善河(三五)
海州邑南幸町六 精米業 全齡鉉(四二)
海州郡秋花面月鶴里 精米業 金應珙(三二)
海州邑南旭町四三 精米業 李章勳(二九)
海州邑廣石町五四 精米業 崔承鉉(四七)
(以上拘束)
信川郡信川面校塔里 精米業 金忠鉉(四二)
海州邑南本町一三七 前仁川汽船會社海州出張所長 田中正雄(三二)
海州邑南旭町四二〇 仁川汽船會社員 崔元英(二九)
海州邑仙山里三三九 材木商 朴貞濬(三〇)
(以上不拘束)

등 십일명에 대한 구형공판은 이천여방청객의 쇄도로 대혼잡을 이룬가운데 지난이십구일 해주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이집원(伊集院)재판장주심과 박(朴) 이천(二川)양판사의배석 중촌(中村)검사의립회하에 개정하여 삼십일 이월일일까지 삼일간에궁하야 피고십일명에대한사실심리를 맛치엇다 최수동과 구보사량이 부분적으로 범행을부인하바게 피고최선하등구명은 대체로예심결정서에 나타난범행을 시인하엿스며 재판장으로부터 운송회사관계자 구보 전중 최수동 최원명에게허위창하증권(虛僞倉荷證券)을 발행한리유와 보수여부를 날카롭게 추궁하엿는데 그들피고는이구동성으로 보수관계는 일체부인하고 거짓증권발행한것은 첫재 늘오는송을 기탁하는하주(荷主)를 빼앗기지 안흐려는것 둘째 리에서 즉납되지 안는다는것 로오래동안 거래한 정실관계에 사로잡혀 정미업자의 청탁을거절치못하고 발행한것이라고 공술하엿는데 속행공판은 오는오일로정하엿다

地方人事

▲林萬壽氏(鐵川郡德山面龍夢市廣愛醫院醫師)開業人事次本報鐵川支局來訪

▲李觀熙氏(靑陽郡守)新任人事次本報靑陽支局來訪

▲申鳳燮氏(靑陽郡廳內務主任)新任人事次本報靑陽支局來訪

▲多田萬一氏(義城警察署長)新任人事次本報安溪支局來訪

婦人夜學開講

本社文普敎材로

【翠野】해주군라덕면(海州郡羅德面)에서는 면내의문맹부인들에게 글을가라치기위하야 지난이십일일부터 면사무소회의실과 미산서당(微山書堂)에 부인들을모아 교사김진명(金鎭明)씨와 리행렬(李行烈)씨가 도로야학회를 개최하는동시에 본보해주지국(本報海州支局)을 통하야 본사문자보급교재를 각구입분배하여 교수중이라는데매우 량호한 성적을보이고잇다한다

안해는남편거러고소 남편은안해거러소송

【甕津】안해는 남편에게 매를 맛고 의사의 진단서를 붙처서 경찰에 고소를 제기하고 남편은 자기 안해를거려서 재판소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잇는데 그소장에 나타난 내용을보면 황해도옹진군룡연면한흥리(龍淵面漢興里)오백삼십사번지에 사는 남로천(南老泉)의 맛아들 상준(相俊)과 동군마산면 룡호리(馬山面龍湖里)사백오십번지 리용인(李用仁)의둘째딸 금련(今蓮)은 작년이월십사일에결혼하고이래남편의상준집에서 함께살고잇든바 남상준은 리금련에대하야 공연한의처증을 가지고 항상 미워하든남어지 사람으로서 참아견대지못할 폭행과구타를 당하얏다하야 얼마전에 리금련은 의사의 진단을 내가지고 옹진경찰서에 구타죄로 고소를 제기하엿스므로 쌍방을 호출하야다가 취조하는중인데 한편으로 남편남상준은 지난이십이일에 자기안해 리금련을 상대로 해주등전(藤田)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주지방법원민사부에사백오십원팔십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얏다 그소장의내용은 전기한바와가티 작년이월에 피고리금련과 결혼하야 이래동거하든동 두차례나 리금련은 무단가출하야 친가로가서잇는것을 다려온사실이 잇섯는데 그후사실내용을 아라본결과 리금련의 배후에는 정부가잇스므로 도저히 부부생활을 할수업슬뿐아니라 정신상으로나 물질상으로나 손해가 만흐니 손해배상을 내라고 마침내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것이라는것이다 리금련측에서는 무고한 량처(良妻)를 트집을 씨워서 바리는것은 인도상으로 참아용인치못할일이라하야 해주심(沈)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해가지고 역시해주지방법원 민사부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얏다

不景氣모르는 咸興花柳街

【咸興】최근수년래로 팽대하여가는 소위 부조선경기의 여파로 흐터지는 황금의 물결은 이곳저곳에서 그빗츨 나타내고잇다。그한례로서 경기조흔 함흥부내화소정(花笑町)일대의 유곽경기는 실로 풍성풍성한것으로 작년중의 유흥객이 일만칠천사백팔십오명이라는다수에 달하엿고 소비한금액은 십이만팔천팔백사십삼원삼십입전에 달하엿다는것으로만도 넉넉히집작할수잇다

幹線道路着工

公會堂—萬歲橋間 都市計畫의第一着

【咸興】함흥의간선도로로서 오래전부터 시행하려고하든 만세교(萬歲橋)로부터 공회당(公會堂)까지의 삼십오메돌의 대폭도로는 금년도부터 도시계획의제일착으로서 착공하기로내정되얏다고한다 이도로는 유락정(有樂町)시장 함주(咸州)군청 지방법원(地方法院)등의 이전 또는 일부변경을하여야 할터임으로 다소곤난이따를것이라고한다

里對抗蹴球戰

弓山體育會主催

【廣梁灣】농촌의 농한기를리용하야 룡강군해운면 궁산리(龍岡郡海雲面弓山里)에서는 동리기성단체인 체육회주최 본보광양만지국후원하에 오는륙일 궁산리 명덕학원(明德學院)운동장에서 리대항축구대회를 개최한다는데 일반단체는 다수참가하기를 바란다하며 상품은 다음과갓다고한다

◇賞品
一等賞 優勝旗 一幅
二等賞 現金五圓或은盾一個

平北道議改選

六月十日로決定

【新義州】평북도회의원(道會議員)은 제오회도회(道會)를 깃내이고 오는 륙월십일 총개선하기로 결정되여잇난데 각후보자들은 지금부터 대책을 강구하고잇다한다

統營灣鱈魚大豊

漁獲五十餘萬尾 十一月부터一月까지의收獲 各漁場은極히殷盛

【釜山】경상남도내에서 유일한 대구어(鱈)생산지인 통영(統營)근해에 작년십일월부터 금년일월말경까지에 대구어가 다수습래하야서 각어장마다 대풍어를 계속하고잇는데 그간약삼개월간에 정치어장(定置漁場)일백팔개소에서 어획한수량이 약오십여만미이고 그판매고도 약이십만원을 돌파하얏다하며 이월부터는 호망어장(壺網漁場)에서 작하게되여서 삼월말까지 계속하게되는데 적어도 십육만여원의 어획고를보게되리라하므로 총액이 삼십육만원을 돌파하리라하야 각어촌에는 활기를띄우고잇다한다

000373

長篇小說 그의自敍傳【43】

長白山人 作 熊超 畵

교원생활(三)

사실、오월을 이 모양으로 쉬하여보내다가 나는 마음을 돌려잡을수가 잇엇다。하나님은 나를 버리지아니하신것이엇다。

나는 술을 뚝 끊고 아침에서 해질때까지 학교에만 잇엇다。나는 내일 가라칠교재를 내힘껏 준비하고 또 직원과 학생과도 사괴엿다。나는 야구와 정구와 축구를 사다가 학생들에게 가라치고 또손소 비를들고 학교구내의 청결을 하야서 학생들의 모범이 되려고하엿다。그리고 어학교재를 모아서 등사판에 박아서 교과서를 삼앗다。나는 M학교에서 공부하던 깨끗하던 시대의 나를 회복할수가잇엇다。나는 조국에 대한 의무를 굳세게 인식하엿다。나는 이 학생들을 가라치기에 전생명을 다 바치리라고 혼자 맹약하엿다。나는 내가 가난한 생활을 하는것을 조국에의 봉사로 생각하려하엿다。

이러케 고처진 내 생활은한달이 못하야N교주와 기타 직원 학생들의 인식한배 되어서 나에게 대한 신임과 존경은날로 더하엿다。나는 학교를 내집으로 알고 학생들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로(자녀라는 생각은 나이관게로 나지아니하엿다) 꼬이꼬이 정을 들이게되엇다。

여름방학이 지나고 가을 학기가 되어서는N교주와 K이라는 교무주임격인 늙은 선생이 학측변경을 내게 일임하도록나는 신임을 밧앗다。

그뿐아니라 나는 N교주의고향인 Y라는 동네의 동회에회장이 되고 남녀야학교의 교장이 되어、집도 Y동네로 옮겻다 나는 가정생활로도 동네의 모범이 되리라 하고 닭을 치고 방이며 부엌이며 마당을 아침마다 손소 깨끗이 치이고 새벽 일죽 일어나 동네 길을쓸고 학교에 건너와 학교의 청결을 몸소하엿다。특별히 부엌과 뒤깐의 청결을 위하야서 동회에서 많이 권면하엿고 또 이불과 벼개를 깨끗이 할것을 장려 하엿다。동회를 세우기는 N로인이어니와 이러한 여러가지 실행에는 내 힘도 없지아니 하엿다。

내가 몸소 행하는 정성으로 동회의 인정하고 신임하는 바가 되어서 회원들은 깃브게 내종고를 들엇다。얼마지난 뒤에는 나는 회원들의 마장일치의 결의로 청결검사위원이 되어서토요일마다 집집으로 순회하면서 방과 부엌과 뒤깐과 금칫까지도 모도 검사하는 권한을 받앗다。부뚜막은 일주일에 한번씩 새로 「흙칠」을 하여야 하고 뜰에는 황토를 깔아야하고 이불과 요닛과 벼갯잇에는 때가 묻으면 안되고 또 가마솟과 기명은 어른어른하게 닦이지아니하면 아니되고 닭이나 영이나 바자나 다 가쯘하게 아니하면 아니되엇다。

『이것이 더럽습니다』

한다든가,

『여기를 좀 고치시지오』

하면 부인네들은 다 깃브게 내말을 들엇다。

나는 이 밖에 회원 전체를 위하야 남자는 매일 집세기한켤레、여자는 끄니때마다 매식구에 쌀 한 수까락씩을 모아서 한달에 한번 동회 모이는 날에회에 바치되 저마다 제구좌로 하야 저금해두엇다가 그돈이 백원이 차거든 찾아갈수 잇고 그 동안에는 저리로 대부하는 제도를 세웟다。이 제도에 대하여서는 처음에는 이론도 잇섯스나 결국 그대로 시행하야 불과 반년에 오백여원 자금이 모엿다。

동네 전체가 예수교인인것과 또 이 동회로 하야 Y동네는 이웃 다른 동네와는 딴판인 동네가 되엇다。술과 노름이 없는것은 물론이어니와 어느동네에서나 흔히 보는 이웃끼리의 싸움도 없엇고 집들、옷들도 다 깨끗하게 되어서 헌병들이 청결검사도 아니 들어오게되엇다。Y동네에는 실로 경찰이 올필요가 없어젓던것이다。

이듬해 봄까지에는 학교도 면목이 일신하고 동회도 자리가 잡히고 모든것이 재미 붙으리만 한 때에 큰 사건이 일어낫다。

내가 K학교에 온해 팔월이십구일에 합방이 되엇다。나는 K역에 붙은 두나라 황제메하의 합병조서를 읽엇다。그날은 하례해서인지 지나간다는、이 방에는 무척 해무가 자욱하게 낀 날이엇다。이합병이라는 큰 사실이 내게 깊은 인상을 준것은 말할것도 없다。내가 학교와 동회에 전생명을 바치려 든것두 이영향이 한 원인이 되엇을는지도 모른다。

營業案內申越進呈

藥 卸問屋

京城南大門通二丁目 株式会社 新井藥房

電本 九〇四・一〇六八 / 九〇四・三四四八
振替京城一六番

自宅机上で出來る 好職業

遠近男女の別なく誰でも自宅机上で出來る趣味と實益を兼備せる中年無休永續する好副業推奬す勤人學生婦女子に最適の眞面目な方に依賴す希望の方はハガキにて申込あれ詳細說明書は無代進呈す

大和生駒町 博文社

萬年筆眼鏡의仕入은當店에

良品廉價 商報進呈

輸入眼鏡 萬年筆

仁川府京町一六七番地 振替京城二四六七〇番 Ⓚ金剛商會

本業과副業에

僅少한資本으로收入確實 生活安定되는… 照會次第型錄無代進呈

大阪市西區本田通一 千代田商事本店 電話西七三九八番

恩給 五年分以上低利立替 借用歡迎 內容書進呈

京城府中學町一四 金星商會 電話(光)二七五八番

分讓 果樹苗木

京城府外纛島 久次米園藝場

朝報案內

求店

鍾路와南大門通方面에二層使用할貨店鋪를至急求함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 朝鮮商美社 電話本局(2)四〇〇八番

白川金氏族譜所

各郡散居人速爲單子提出仰要

義州郡威遠面上端洞 金義善 白

全州李氏宗中事急告

孝寧大君第二子瑞原君墓所在始興郡金佛庵所在山林全部를不正賣渡이온바該事에依하야商議할次로玆에通喩하오니各方族門中으로一代表一員式急送于京城府都染町一百八番地로來臨入參하심을請要함

喪中 李會南 李四儀

靴を丈夫にする HHH サンエッチ靴クリーム

本舖 株式会社 新藤商店 東京 大阪

一月五日부터五日間 每日三回 十時半 一時半 六時十分

世界를敵으로삼고

運轉手武勇傳

眞夜中の酒場

團成社

一月二十八日부터 劇團 靑春座公演第五週

朴英鎬 作 悲劇『흘너간鳳女』四幕

南宮春 作 喜劇 오!너의일홈은女子니라 一幕

二月三日부터三日間大公開 每日二回晝夜公演 一回十二時부터 二回七時始映

大衆料金 階上十五錢 階下十錢

東洋劇場

第一劇場 電話光化門一七五五番

連續大活劇 스피ー드한지 主演 찰스 허친슨

파비社連續無聲特作品 바ー드라릴하우샤氏 監督

時代名篇 大江戶出世小唄 主演 高田浩吉、光川京子

松竹京都下加茂特作全發聲版 大曾根辰夫氏 監督

猛獸映畫 妖鬼잉야ー

米國에이스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監督 제이시이노크博士

朝鮮日報 江華支局 電話三十一番

朝鮮日報 釜山支局 長距話釜山二八九七番

二月一日부터大公開 料金階上三十錢階下二十錢均一

◇三大名畫大封切!!

◇大都映畫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孫悟空 全十二卷 西遊記

監督…石山稔氏 撮影…岩藤隆光氏

出演…藤間林太郞、都健太郞、淸水明、琴絲子、木下雙葉、大岡怪童…外에스타ー數十名出動 (大衆本位의大都映畫)

◇關東映畫社提供全發聲日本語版 쿠ー캉의大成功 全六卷 主演…잘키ー쿠ー캉君

◇全發聲日本語版 爆笑劇 키ー톤의歡人擊破 全六卷 喜劇王바스타ー키ー톤主演

次週=綠의騎手、鬪의銃聲、肉彈總攻擊

桃花劇場 府內桃花町 電話

經濟時評 換物惡性 熾烈 — 變遷하면서 —

馬場財政을 修正하려라는 結城新藏相의 政策은 東京電話와가리 議會解散 非解散의 境遇에따어 左右되리라한다。卽非解散의境遇는 馬場藏相이 編成한 十二年度豫算案을 그대로 踏襲하게될것이오 解散境遇는 財政政策의 根本動向은 國防充實 增稅斷行 低金利政策 金融統制의 徹底等 馬場藏相이 着手한 線에依하야 進行하되 그 方法에잇서서 生産力擴充을主眼으로하야 稅制大修正等으로進하겟다고한다。

이것을要컨대 議會를解散치안코는 技術的困難에依하야 新財政方針을 實行치못하겟고 ...

×

그러면이번政變으로結城氏가大藏大臣에就任한데對하야 財界로서期待하는바는 準戰時經濟時代에잇서서 國防充實은 當然하다하겟지만 다만馬場財政가튼 지나친政策의 再修正에잇슬뿐인바 이것亦是 議會解散을前提로하고서만 期待되는일이다 우리는 議會非解散境遇를생각...

×

하다면 馬場財政의 修正이 잇겟스나 議會解散을 前提한 結城新藏相의 財政經濟政策下에서의 今後를 생각해보기로하자。

廣田內閣이 標榜한 庶政一新의 具體的政策으로서는 劃期的大增稅案을 含한 三十億四千萬圓의 大豫算案과 電力國家管理案等 財政經濟政策의 急角度의 轉換으로서 財界의 全面的抗爭을 招徠하만 (?) 深刻的인것이엇다。이러한 後後的影響財政은 軍事費를 中心으로한 財政需要에 重點을 두고作이 이에 隨伴한것으로서 經濟國防의 觀點으로서 經濟政策의 弱揚을 宣言하면서 國防豫算編成과 施行을 經濟界에 强要하고 이에 重壓을 與한다는 一般的印象을 주어든 것이다。

×

그러나 어는 二·二六事件以後 急轉回한 時代的事情으로서 財政經濟政策이 그先驅으로서 時代相을表現한것인만큼 馬場財政에依하야 示한方向은 今後도 原則的으로 變更되지안을것으로보인다。이것을 具體的으로 觀察한다면

一、國防費十五億圓을 中心으로한 膨脹豫算의 施行은 前으로한 經濟政策의 進展은 本格化할것이다。

二、增稅案에 對한 修正이어너 相當程度로 되는나 稅率을 不許이나 或은 有名無實이 아님가

三、增稅를 減하는만큼 財源不足으로보아 公債發行額도 當分 每年十億圓에서 얼마나 減케될가 依然大赤字公債의 行進이 아닐가。

四、新藏相은 多年 興銀總裁로서 金融界 事業界의 實情을 잘알고잇서 過度한統制는 ...

×

戰爭의 再燃되리라고 期待되는모양이나 어떤程度의 調整이 될것인지 觀測에依하여는 貿易管理의 色彩가 더욱 濃化해지고 爲替管理强化의 一時的對策이 恒久化되리라 見解도 不無하다。

×

現實의 諸情勢가 以上과갓다면 馬場財政의 修正이 어 至難之事가 아닐가? 宇垣組閣難航中에「經濟界의 急變」을 招치안켓다는 軍部의 要求에 强調하엿고 또 結城新藏相에 依하야 財界의 總意로서 急變化調整을 期待하고잇는터이지 만 軍部의 待望하는 庶政一新 後援政策이 前記의 膨大豫算을 必要로하는限 그 政策運行에 잇서 惡性인물네를 어떠케얼마나 막어내게되는가가 注目된다。

×

이번政變에對한 市場의 動態를보면 누구나 意外로울만큼 意外의 靜穩이엇다。그러나 惡性物價騰貴의 影響이 全然손을 대지안엇던때문이 아니라면 그것이 아니오 實質은 平日보다 마찻다 卽不安을 感한者는 買하얏스나 賣한者는 더 만혀섯스며 林大將에게大命이 降下한後로는 各市場動搖의 活況을 示한것은 ... 이가리換物運動이 熾烈한것은 政變如何에不拘코 軍事費中心의 膨大豫算下의 인풀레期待에 專在한것이라겟다。非 常時經濟이 簡單히 나오는다하지안는데 新藏相에依하야 惡性인풀레防止工作이 期待되는만큼 인풀레」本格化人氣에依한 換物運動은 漸著케되어갈形勢인바 勿論「好景氣」의明朗한 人氣가아니오 惡性인풀레警戒가 內包한것만은 숨길수업는일이다

長短金融市場硬化 起債는中止狀態
日銀劵、朝銀券은限外發行繼續
資金供給이 窮屈化!

昨年十一月以來의 金融基調의 不自然한變動은 長期金融市場을 全然起債難에 投하얏는데 이狀態는 年初에도不拘코 依然打開되지안어 一月末과 如함은 短期市場까지 相當히 硬化되어 日銀의 限外發行이 新記錄을示한 狀況을 繼續되는結果、殖産債券 東拓社債等의 新規發行도 中止狀勢이다

殖銀에서도 資金計劃上約三千萬圓起債、東拓一千五百萬圓乃至二千萬圓의 起債를 豫定하고 잇는만큼 右起債의 不能은 資金不需要期이라고는하나 資金操作上 窮屈化는難免이라한다

그리고 朝鮮銀行의 引取入도 一時에比하야 窮屈케되어、限外發行을하고잇다

興銀總裁後任 實來現副總裁

【東京電話同盟】結城豐太郎氏藏相就任에 伴한 興銀總裁의 後任은 現副總裁 寶來市松氏의 昇任이 確定的이오 또 副總裁後任은 現理事中에 適任者가 업스므로 暫時 空位대로 두고 適當한 機會에 補充하리라한다。

京城手形交換增加

一月二十五日부터 三十日에至한京城手形交換所의 手形交換高는二萬八千九百八十七枚 一千三百九十七萬九千八百三圓으로 前週中의 交換高에比하야 四千三百九十四枚 百六十四萬九千二十一圓의增加이다

伍堂商相 財界好感

【東京電話同盟】昭和製鋼所社長伍堂卓雄氏의 商工大臣就任은財界에서 大體로 好感인모양이다 卽伍堂氏는 軍人出身이나 滿鐵理事、昭和製鋼所社長으로서 現在로는 全히財界人이오 特히日滿經濟調整、鐵鋼自給問題等重大國策에關하야서는 從來부터重要한役割을 擔當한人物로 그觀點도 日本內地產業만에 固滯치안코 發展途上에잇는 業界의實情에徹하야、廣義의 日本產業動向에順應한 商工政策이 採用되리라하며 特히 日滿經濟融合化 鐵鋼國策의 解決等에 最適任者로서 그手腕을 期待하고잇다한다

大藏、特銀首腦部異動

【東京電話同盟】結城興銀總裁의藏相就任 川越大藏次官의 法制局長官就任에依하야 大藏省의陣容은 相當히 廣範圍의 異動을免치못할것가튼데 大藏次官의後任으로서는 賀屋理財局長、石渡內閣調查局長官心得、青木對滿事務局次長、荒井專賣局長官等이有力視되며 興銀總裁의 後任은副

清津製鐵所 急速建設

◇…福田日鐵監查役 談

清津製鐵所建設敷地實地調查를 한 日本製鐵福田監查役一行三名은 二日朝入京 卽日 總督府로 石田鑛山課長을 訪問하고 協議하얏는데 如左히말하얏다

實地調查結果에 就하야서는 東京에가서 重役會를開한後가아니면 말할수업스나 可及的速히 建設에着手코저한다

乘港의防波堤는 總督府에서 岸壁은日鐵에서 하기로決定하얏다

一月의米移出 依然히減少
累計七十七萬石移出減
粟輸入도續減狀態

一月中의 朝鮮米移動狀況을보면 依然히 移出은 不振狀態에잇다 一月中만도 前年의百二萬石에比하여 今年은 八十一萬三千石이 잇는데 十一月 以降의累計를보면 前年의 三百五十五萬一千餘石에 對하여 今年은 二百七十八萬一千餘石으로 七十七萬餘石의 移出減을보앗다 또粟의 輸入을보면 이亦是減하여 一月末까지의 累計가 前年의二十九萬八千餘石에對하여 十七萬餘石으로 十二萬七千餘石의減을보앗다

쌀이 잘안나가서 배마다 비인배

朝鮮對 日本內地航路는 米의 移出不振이 依然繼續되어 全혀 閑散인데 이에다가 日本內地로부터의 移出貨物도 그太

一月中米及粟輸 移出入高

米輸移出高 (玄米換算單位石)

[illegible]

粟輸移入高 (單位石)

[illegible]

十一年中 勞銀狀況

明年度의 勞働需給對策과 物價騰貴對策을 考究키爲하야 內務局社會課에서는 全朝鮮에 亘한 勞働者의 勞銀調查를 行한結果 昭和七年을 日本內地 朝鮮各一〇〇으로서 勞銀指數를보면

	日本內地人	朝鮮人
七年	一〇〇	一〇〇
八年	九九	九六
九年	九八	九八
十年	一〇〇	一〇二
十一年	九〇	九二

로示하야 朝鮮人勞働者가 比較的向上을 보고잇다 또昭和十一年中의 各職場別에 依한 勞働賃銀平均調查의 結果는如左하다 (日給單位錢)

	日本內地人	朝鮮人
家作	三、一二	一、九五
貼遣	三、一一	二、〇四
左官	三、三五	二、〇八
石工	三、四六	二、〇八
木挽	二、五六	一、八二
家根葺	三、五三	一、七六
瓦葺	三、一五	一、九二
煉瓦積	三、二九	二、〇八
뻥키職	二、九五	一、八四
指物職	三、九七	一、九一
建具職	三、〇四	一、九五
疊刺	二、九一	一、七七
表具師	二、九二	一、六一
桶工	二、七九	一、七〇
車製造職	二、八五	一、六九
染物職	二、四五	一、三六
洋服職	二、四二	一、四二
靴職	二、二六	一、四一
理髮	一、九二	一、二三
活版	二、〇五	一、一二
商人足	一、四三	一、一二
土方	一、八二	九三
擔軍	—	七四
仲仕	二、〇九	一、三六
魚夫	一、九九	一、二四

(以下月給)

	日本內地人	朝鮮人
杜氏	七八、四九	三九、九四
醬油製造職	五九、七〇	二九、二三
下男	二三、〇〇	一一、一六
下女	一四、九六	七、六六

經濟界消息

○京城建物總會＝京城建物株式會社第三期株主總會는 三十日午後三時同社樓上에서 開催하고 常務取締役朴受景氏가 議長이되여 營業報告 監查役 改選件을 原案대로 可決한後 當期配當은 年八分으로 決定하엿다 同社에서는 新年度부터事業을 ...

○永登浦鍾紡工場女工七名은 粗食待遇에 不堪하야 夜半脫出

○吾人은 日可日否를 그만두고 津出社長이 落成式에서 一千五百名 來賓에게 公約한 演說要旨를 들어 工場責任者의 猛省을 促한다

○「民度를向上식히어야겟다、일을주어야겟다、衣食足而 知禮節」等等

○ 壤斛치못할 粗食待遇가 社長演說과 背馳되지안는가?

○ 社의方針이 그러타면 社長의公約은 잡고대이엇든냐?

朝郵의長壽山丸 無事浦鹽에入港

浦鹽의 日本船 不法抑留事件以來 北日本汽船 朝鮮郵船에서는 蘇聯側의 今後의態度를 注目하면서 一船을各其 浦鹽에入港케하야 朝鮮郵船의 長壽山丸은 一日揚荷 二百噸을 積載하고 入港하엿는데 今回는 平穩하야 浦鹽의積荷百噸을 荷役하고 三日浦鹽港을 出帆할豫定이라한다

今日의市勢 (二日)

株式 保合이나 堅調

前場保合

昨後場一息商狀裡에大引된市勢는 林內閣成立의具體的政策發表待로 外電低와新內閣報를接하고도 買氣不森하야 不變裡에寄付하야 變方警戒裡에保合를繼續하다가 結局東新百五十五圓十錢 大新九十二圓丁 鐘新二百三十七圓丁 日產八十七圓丁으로 底堅裡에前場을마치엇다

後場同調

後場은 東新百五十五圓四十錢 大新九十二圓十錢 日產八十七圓七十錢等에少堅裡에 寄付하야 揉合裡에 不變이엇다

目前整理商勢

政變은契機로 百四十七圓九十錢에 反落하엿든 東新이 政局安定을 好感하야 昨後場 百五十七圓八十錢까지 買進되엇는데 高價에는 新規買物이 업서 다시 百五十四圓臺로 下押하게되엇든바 結城氏가 藏相에 就任한것은 馬場財政修正期待로 好感될뿐아니라 同氏가 取引所度調查委員會長이니만큼 取引所株인 東新自體의不安은 一掃된것으로 봄수잇는터인데 買氣가 不添하는것을보면 東新市勢自體內에 上進하지못할 그무엇이潜在한것가리 생각도된다。그가장큰것으로서는 東京市場의先限取組만이 百二十萬을 突破한다는事實이니、비록인풀레 時代에直面하야 市場의規模가 擴大되고 環境이好轉되엇다고하더라도 取組는亦是 市場資金도 一定한限度가잇다는 點으로보아 무리가아닐수업다。이런意味에서大局的으로는上勢라고본다하더라도 玉整理가某程度로進捗되기까지는 上伸力은 疑問이라는말이잇다

工業株活躍時代

造船株가 續騰하고 肥料株가 頑强하며 鑛業株、紡績、人絹等이 强硬하며 電力株도 過賣反動으로 反撥하엿스나 무엇보담 工業株 그中에도 機械工業의活躍은 注目되는바이다

▲電力株 宇治川電은 一圓高로四五、八 同新二高로一一、五 大同電力이入高로四五、〇 同新二高로八七、二를보여 過賣反動이엇다

▲電鐵株 阪神電鐵은 五十錢低로七六、五 同新四十錢低로二七、二이며 京阪電鐵은八十錢低로三六、五 同三新二十錢低로一

(東)……

▲船舶株 大阪商船은 一、七二、八이엇다。高인 七一、九 同新三高로二九、三이며 川崎造船은 一、五高로五五、〇 同優先株가 一、九高인 五五、五이엇다

▲化工株 라사工業은 一、五高로 一二三、五 同新二、三高로 八〇、五이며 電化는 二、二高로 七五、五 同新一、四高로 六二、〇 人肥新은 五高로 二六、〇 日滿아루미 一圓低이엇다

▲機工株 神戶製鋼은 一、〇高로 八八、五 發動機製造는 二、五高로 六七、〇 帝國製鐵이 五高로 七九、〇 豐田織機가 三高로 六六、八이며 近者興味가 集中되고잇는 大阪製鐵은 三、〇高로 六三、〇同新五高로 二二、〇等으로 諸工業株는 續騰이엇다

▲鑛業株 三菱新은 四高로 九二、二北樺油는 一、〇低로五〇、〇 五 同新一、〇低로五〇、〇이엇다 北樺鑛은 一、三高로四一、五 朝鮮製鍊은 五低로 三三、八 도렛지는 不變인 三三、二이엇다

▲人絹其他 絹綿人絹은 三高로 四四、八 昭和人絹은 五高로 四一、五 岸和田은 五高로 三一、〇 五로 紡績人絹은 堅調이며 大同產業은 配當復活豫想說과 함께 一〇、五를 보엿다

製鍊拂込徵收
五百萬圓拂込濟로된다

朝鮮製鍊에서는 一日重役會의 結果 一株에 拂込十二圓五十錢을 徵收하기로 決定하고 三月一日을 拂込期間으로 하게되엇는데 이結果 同社의 資本金은 一千萬圓 五百萬圓拂込으로된다

實物前場取引

▲電氣化學新 六八、五 ▲關東水電新 六八、八 ▲大同產業 九、五 ▲三菱重工業 八九、五 ▲帝國火藥 ▲人造肥料新 二〇、五 ▲朝鮮製鍊 二四、五 ▲日本鋼管 一六九、八 ▲同新 一六八、〇 ▲特殊鋼管 五五、八 ▲日本電力新 二五、七 ▲大同電力新 一七、二 ▲大同紡績新 一四、五 ▲朝鮮開拓 三、五

(取引高二四〇枚)

國債 傍觀이나 堅調

▲東京【東京電話同盟】新內閣의 具體的政策發表待로場面은 傍觀裡에 市勢는 大體不變으로 佛貨만千錢小高이엇다 米貨도 緖上一巡模樣이어서 六分半五分半共히 二、三十錢高로安定商狀이엇다

▲大阪 ▲甲五分利 一〇〇、〇五 ▲四分利 一〇〇、〇〇 △一回四分一〇〇、五〇 △二回四分 一〇一、一〇 △佛貨四分 一九〇、四五 ▲第三五分 一〇〇、〇〇 ▲一回四分 一〇〇、九五 ▲二回四分 一〇〇、五〇 ▲佛貨 一九〇、一〇 ▲米貨六分半 一〇〇、八〇 ▲滿洲公債 一〇〇、三〇

市場寸感

株……結城新藏相은 馬場財政의 修正策으로 取引稅財產稅의廢止 所得稅綜合課稅를回避하리라고 ▲그러나 이로因한減收를 補填키爲해서는 公債增發以外에 무슨道理?▲뿐만아니라 資本家擁護態度만으로나간다면 軍部와의 對立衝突이 危險 ▲今後를 보지안코는 모를일이나 結城氏에게도 큰期待는難望……

米……林大將의 組閣은 完了되엇는바 結城藏相의 今後財政方針이 마치엇이如할지 가 注目꺼리 ▲그러나 馬場財政政策의 多少修正은 업지안을것이나 國防充實에 잇서서는 今日의 國際情勢로 보아 무實行하지안홀수업는일이 어떠 ▲何如間「인풀레」景氣時代는 必至하고야말 모양이니 米價도 一般物價의 昂騰과 共히 追隨할것은 亦可期 ▲昨日來의 各地反落은 昂騰途中의 一時的 呼吸일것이니 低價에는 또한 買方針을 取하는것이 得策이라는말이잇다

인풀레는必至

大命을拜受한林大將의 組閣은 完了되엇는바 가장注目되는바로 藏相의 今後財政策이 事件付로人望한結城豐太郎氏는 馬場財政의方針을 踏襲하지안홀것으로觀測하는모양이나 國防充實할것갓다

期米 材料一巡 對峙

前場演軟

昨後場阪地三十二圓三十九錢止와 共히 三十六十九錢에 寄를 止한 當市場은 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三十三圓四十二錢인 三丁反高를好感하고 三十三圓七十七錢인 八丁高로 寄를始한後 阪地四十五錢으로 返戻하엿다가 三十七錢으로 反落하엿다가 二節七十八錢으로 八節六十六錢까지 反落하엿다가 七十錢에 止場하엿다

後場保合

後場은 三十圓七十四錢인 四丁高로始場한後二節七十六錢 三節七十三錢으로揉合하다가 五節七十錢으로保合이엇다

風靜浪息狀態 當分保合而已

七十噸會가 開幕되자 三十億圓에 達하는 大豫算이 通過될것을 豫期하는同時에「이풀레」의 景氣가 到來할것이라하야 一般物價는 豫算이實行도 되기前에 벌서 一擧棒上의 氣勢를 올리어 相當한 高價를 示하엿스며 米價亦是三、四十丁의昂騰을告한 後 日本內地米實收增加發表와廣田內閣의 總辭職을 期材로하야 三百二十餘丁의 瓦落을 告하고 宇垣大將의 組閣에 至하기까지 波瀾萬丈의 逕路를밟어 四月限의 三十圓九十錢臺의 高價를 示하게 林大將의 組閣大命의 拜受辭... 고보면 今日의 米況은 인풀레 景氣時代는 必至할것이며 따아서 諸物價의昂騰과共히 米價亦是追隨하지안홀수 업는 環境에處하여잇다고 보는 모양이다

仁川在米增加

一月卅一日現在 仁川在庫米는 前週에比하야 合格米는 四、九一八叺의增加量示하엿는데 在品을 細別하면 左記와如하다

▲玄米四斗入 七八、一六一叺 五斗入 九、〇八四叺 ▲白米卅 키로 一、〇〇〇個 四斗入 四、〇三一叺 五斗入 六六叺 ▲正租叺入 一七七、九〇二叺 俵入 八四〇俵 ▲大豆 三九、五 六九叺 ▲小豆叺入 一、一六二 叺 俵入 一、四五〇俵 ▲大麥(白)一、三八〇叺 (裸)五、七 三八叺 ▲小麥 一、八〇〇叺 ▲粉 一八〇叺 ▲粟 九八叺 ▲黍 二六八俵 ▲黍 一、〇〇叺 ▲綠豆 三三〇俵 ▲糯米 一、四二〇 叺 (白九) 一、一五五袋 ▲白玄 二、〇五四袋 還鐵 一、三五五袋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今日財界 二日

◆米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仁川期米 先限	三三、七〇	二高
大阪期米 先限	三三、四九	不變
京城二等米 一石	三二、〇〇	不變
正租(仁川)二等 一斤	四八(?)	不變

◆株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朝鮮取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大阪綿絲	[illegible]	[illegible]
大阪綿花	[illegible]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illegible]

正米 閑散裡에 不變

京城不變

期米伸悩로 人氣多少冷靜化하야 唱價는 不變이엇다 ㊀三等三〇、五〇 四等三〇、〇〇 一等白米三二、〇〇

仁川閑散

持米側은 곳까지 强硬하야 高價待로 傍觀하고잇기때문에 市場은 大閑散場面에 始하엿다 ㊀三等三〇、五〇 四等三〇、一〇 一等白米三二、五三

釜山不變

定期의伸悩로先高擧相側의 買氣가阻害되고 當用側의 買付도消極的이나 所持側의 態度强硬으로 氣配는下遊이엇다 ㊀三等三〇、九〇 四等三〇、〇六 一等白米三二、〇六

大邱强

目前買上을알두고 正租의高價繼續으로 持米側의 態度가 자못頑强하고 兼하야 期米堅調로 市況은 極히底堅한 推移를보이고잇다 ㊀三等三〇、六〇 四等三〇、三〇 一等白米 三二、三五

群山少弛

價位가 價位인것만큼 產地의 賣氣를 潛在케하고잇스나 態度는 極히 消極的이어서 日本內地米拂下와 買上에 關心을 集中하고 賣買는 全혀 不振이다 依然日本內地와의 取引은 沒交涉狀態이다 ㊀三等三〇、三〇 四等三〇、一〇 一等白米三二、八〇

木浦同

買上을 目前에 압두고 應募量 目標로 買氣가 潛在하나 價位가 昂揚되어잇기 때문에 飛付買警戒가 敢寶하야 賣物은 相當히 出現하나 定期强調의 比로는 買氣는 不添하는形便이다 ㊀三等三〇、七〇 四等三〇、四〇 一等白米三二、七〇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當島前場은 動搖裡에 朝鮮側의 連鎖當先米替가 注目되엇다 當限前途가 混亂하나 田中貞新甫以來 處分途中에잇서 今朝에는 閑寂으로부터 連鎖賣物을 너허 同氏의 買玉이 顯著히 減少되엇다

▲賣方 地場軟派、中東側
▲買方 朝鮮側、東京側、地場强氣

堂島期米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寄付	大引	高値	低値
取前 / 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新前 / 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新前 / 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前 / 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前 / 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產前 / 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前 / 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短期主要株取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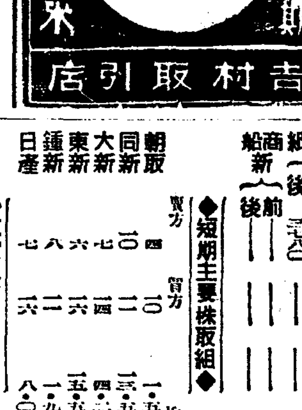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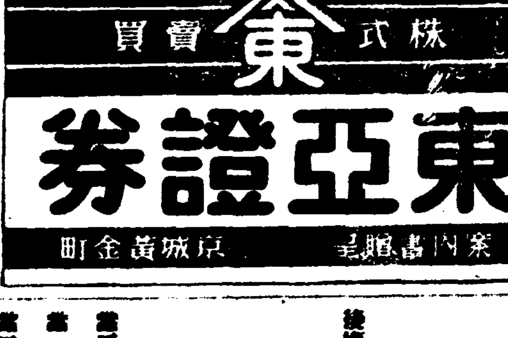
朝取短期賣買高 / 算定代引日步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 東京現株 / 大阪短期

[illegible]

大阪長期 /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朝取期米 / 群山期米 / 木浦期米 / 釜山期米 / 大邱期米 /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 東京期米 /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海外經濟 一日

銀行券 一日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illegible]

手形交換·金利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鹽油粕·麥粉
◆阪神鹽粕 ◆阪神鹽油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對外爲替
◆東京金利 ◆大阪金利 [illegible]

金銀價
◆金買入價 ◆東京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正米
◆京城正米 ◆仁川正米 [illegible]

正租 / 雜穀
◆大阪正米標準價 ◆大阪市中在米高 ◆京城雜穀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本絹交織人絹
◆京城絹布 ◆大連特產市況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砂糖
◆大阪砂糖 ◆東京砂糖 現物糖(ST) 賣買中價二二、八〇錢 [illegible]

生糸
◆橫濱生糸 現物D格九一〇圓 [illegible]

人絹
◆各地人絹 ◆大阪人絹現物 [illegible]

棉花
◆大阪棉花 [illegible]

綿糸
◆大阪綿糸 [illegible]